

‘문화예술’ 통한 옥포항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거제시의회(도시재생관광인프라연구회)



■ 연구 용역기관 (주식회사 가이아)

	이 름	소 속
연구책임	김 형 석	주식회사 가이아 대표이사
연 구 원	함 의 정	주식회사 가이아 연 구 원
보조연구	최 승 훈	주식회사 가이아 연 구 원

■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연구회’ 참여 의원

	도시재생관광인프라 연구회 회장 안석봉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위원
---	--

	강병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의원 경제관광위원회위원
	이태열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위원		최양희 의원 경제관광위원회위원

서문/말뚝의 눈물? 옥포의 눈물? 말뚝의 터닝? 옥포의 터닝?

옥포에서 태어나 지역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에 뉴스에서 ‘말뚝의 눈물’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까지 글로벌 조선업계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주도권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 넘어왔습니다. 말뚝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조선산업도시였는데, 조선업종이 침체를 겪으면서 도시의 경제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스웨덴 조선도시 말뚝에는 ‘코쿰스 크레인’으로 불리는 초대형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2002년 코쿰스 조선소를 인수한 덴마크 회사도 결국 파산하여 이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크레인을 인수한 회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초대형 크레인의 매각 가격이 단돈 ‘1달러’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크레인 가격으로는 1달러만 내고, 대신 해체와 운송을 모두 자부담하기로 했고, 220억 원의 비용으로 울산까지 옮겼다고 합니다.

2002년에 스웨덴 조선업의 자존심이었던 코쿰스 크레인이 1달러에 해체될 때, 말뚝 시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국영 TV방송은 그 영상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다른 언론들이 ‘말뚝이 울었다’, ‘말뚝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남서부의 말뚝은 우리 거제시와 인구가 비슷했는데, 조선소가 문을 닫자 도시 인구의 10%인 2만 7000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암울한 장송곡이 아니라 희망의 행진곡이 울린다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로 실업자를 흡수해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조선업 연명을 위해 썼던 재원을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현재 말뚝의 조선소 터는 ‘터닝 토르소(Turning Torso)’라는 노르딕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도시 랜드마크, 54층 고층 빌딩을 지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물, 북유럽에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청정에너지의 친환경 뉴타운이 조성되었고, 도시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쳐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혁신되어 이제는 “말뚝의 눈물이 아니라 말뚝의 터닝”이라는 말로 더 유명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 거제시의 조선산업 이후의 미래 도시상은 해양문화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 감성사회로 급변하는 21세기의 도시 경쟁력은 ‘문화’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를 고민하며 의정활동 중, 틈틈이 국내 문화 명소를 탐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중 벤치마킹 할 곳도 있었지만 입으로만 떠드는 구두선 명품도시가 더 많았습니다.

거제시의회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연구회의 ‘문화예술을 통한 옥포항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영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거제의 정체성에 문화, 예술을 통한 업그레이드로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 ‘천만관광거제’를 준비하기 위한 작은 걸음마입니다.

이번 연구 영역은 옥포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동체 존(Zone), 국제문화 존, 역사 존 등 중에 옥포항 주변을 ‘지상 최후의 명품’이라는 예술을 접목한 “옥포 도시재생의 꽃”으로 만들기 위한 예술섬 방향성 탐구입니다. 옥포항 주변을 지역 고유의 정체성, 장소성, 역사성을 바탕으로 아트(Art)와 융합, 통섭하여 문화적 볼거리와 가치 창조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우수사례 참고, 정책적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이번 연구 영역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 속에 추억이 있는 옥포항, 구 옥포여객선터미널, 수변공원 등 하드웨어에 공공적 문화예술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쇠퇴하고 있는 옥포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 및 인구 유입 유도 및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문화 르네상스’ 실행과 ‘거제다움’을 특성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적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시작! 풍전등화 조선을 충무공과 군관민이 함께 구한 ‘구국의 승전자- 옥포’에서 열었으면 합니다. 거제시민, 옥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감동의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매력적인 옥포항! 다시 찾고 싶은 거제도!” 인문학적, 창의적 발상으로 모두 함께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영역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도시재생관광인프라연구회 회원 강병주, 김동수, 이태열, 최양희 시의원님, 거제시의회 관계 공무원분들, 예술법인 가이아(주) 연구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연구회 회장
안석봉/거제시의원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기간 및 범위	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환경분석	9
제1절 현황분석	11
제2절 문화유적·관광지 현황	13
제3절 산업·경제 현황	17
제3장 도시재생	23
제1절 도시재생 배경	25
제2절 문화적 도시재생	2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28
제4절 유관사례 분석	33
제4장 문화예술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41
제1절 문화예술관광	43
제2절 지속가능관광	44
제3절 관광 현황 및 트렌드	46
제4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	44
제5장 문화예술 도시재생 활성화 사례분석	59
제1절 국내 사례	61
제2절 국외 사례	67
제6장 비전 및 정책 방향 설정	77
제1절 비전 및 핵심키워드	79
제2절 정책 방향 설정	81
제3절 추진과제	82
제7장 결론	85
참고문헌	89

〈표 2-1〉 사업체수 및 종사자(개, 명)	12
〈표 2-2〉 옥포1, 2동 문화유적지&관광지	13
〈표 2-3〉 거제시 문화유적	15
〈표 2-4〉 거제 9경 9미 9품	16
〈그림 1-1〉 공간적 범위	5
〈그림 2-1〉 옥포1동 관내도	11
〈그림 2-3〉 옥포대첩기념공원	14
〈그림 2-4〉 옥포대첩 승전기념비	14
〈그림 2-5〉 거제시 인물 현황-1	15
〈그림 2-6〉 거제시 인물 현황-2	16
〈그림 4-1〉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청사진)	33
〈그림 4-2〉 창생플랫폼은 2022년 탄생할 예정	34
〈그림 4-3〉 청년센터 '바라'	34
〈그림 4-4〉 청년학교 '다량'	34
〈그림 4-5〉 우분트의 알뜰장터	35
〈그림 4-6〉 목공소의 포켓공원	35
〈그림 4-7〉 텅 빈 통영 폐조선소 모습	36
〈그림 4-8〉 통영리스타트플랫폼	37
〈그림 4-9〉 조선소 크레인	38
〈그림 4-10〉 야외무대 공간 예정	38
〈그림 4-11〉 조선소 시설물	38
〈그림 4-12〉 봉숫골 골목 1	39
〈그림 4-13〉 봉숫골 골목 2	39
〈그림 4-14〉 봉숫골 골목 3	39
〈그림 4-15〉 봉숫골 골목 4	39
〈그림 5-1〉 해안동 창고 1(1933) Before	61
〈그림 5-2〉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2009) After	61
〈그림 5-3〉 일본우선주식회사(1888) Before	62
〈그림 5-4〉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사무실(2016) After	62
〈그림 5-5〉 금마차다방(1943) Before	62
〈그림 5-6〉 인천서점(2018) After	62
〈그림 5-7〉 대한통운 창고2(1948) Before	62
〈그림 5-8〉 공연장(2009) After	62
〈그림 5-9〉 (좌)1963년-고려제강 수영공장 설립, (중)2008년-고려제강 수영공장 생산 종료, 설비 이전, (우)2016년- 복합문화공간 F1963으로 재탄생	63

〈그림 5-10〉 복합문화공간 F1963	63
〈그림 5-11〉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본관	64
〈그림 5-12〉 미술관 외벽 전시장	64
〈그림 5-13〉 미술관 워크숍에 참여한 관람객	64
〈그림 5-14〉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1층 수장고	64
〈그림 5-15〉 삼례문화예술촌·책마을	65
〈그림 5-16〉 (좌)모모미술관, (중)소극장 시어터애니, (우)디지털아트관	66
〈그림 5-17〉 (좌)문화카페 프레, (우)삼례책마을	66
〈그림 5-18〉 (좌)김상림목공소, (중)커뮤니티 뭉치, (우)책공방 북아트센터	66
〈그림 5-19〉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67
〈그림 5-20〉 스페인 빌바오 Nervion River embankment in Bilbao	68
〈그림 5-21〉 북쪽의 천사	70
〈그림 5-22〉 밀레니엄 브릿지	70
〈그림 5-23〉 발틱 현대미술관	71
〈그림 5-24〉 세이지 음악당	71
〈그림 5-25〉 기계 코끼리	73
〈그림 5-26〉 시조새	73
〈그림 5-27〉 오징어	73
〈그림 5-28〉 나오시마 미야노무라 포구	74
〈그림 5-29〉 베네세 하우스	75
〈그림 5-30〉 빨간 호박, 쿠사마 야오이(Kusam Yayoi)의 호박 시리즈	76
〈그림 5-31〉 신사를 개조한 아트하우스	76
〈그림 6-1〉 예술의 섬-옥포(Art Island-Okpo)	79
〈그림 6-2〉 옥포 융합 지역문화마케팅	80
〈그림 6-3〉 옥포 핵심가치	80
〈그림 6-4〉 브랜드 디자인 사례	83
〈그림 6-5〉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의 로고 선행연구 사례	84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기간 및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 국내의 도시재생은 2000년 이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도입되기 시작
 - 1980년대 이후 민간중심 재개발과 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확산하였고, 1983년 합동 재개발 방식 도입 이후 단지식 아파트 재개발 확산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에 대규모 철거 재개발이 정착되기 시작
 - 2003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도입되면서 아파트 단지식 재개발 사업이 확산하였고,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뉴타운 사업을 통한 집단적 정비가 시행
-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을 통한 공간 관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 도시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단위 철거 방식에 따른 장소성 상실
 - 철거 재개발은 골목길, 시장, 상가 등 주거지의 다양한 문화적 속성을 일시에 사라지게 하여 도시 정체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그 과정에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커뮤니티 해체의 원인으로 작용
 - 과거 대규모 전면철거형 정비 방식은 수익성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도시 활력의 원천인 기존 도심부 재생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
- 이러한 기존 도시 정비 정책의 한계 극복과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 재생특별법)」이 제정
 - 「도시 재생특별법」은 쇠퇴도시의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의 주도하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
 - 「도시 재생특별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전면철거 방식의 물리적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
- 현재 거제시는 조선업 침체에 따라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
 - 중소형 조선사가 밀집된 남해안 조선 벨트를 비롯하여 옥포항 인근에 자리 잡은 대우조선해양 등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 이에 옥포항 내 조선업 근로자 가족이 대규모로 지역을 이탈하는 등 경제침체와 더불어 2017년부터 3년 연속 인구감소로 인해¹⁾ 지역 공동화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
- 이와 더불어, 옥포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노후화
- 옥포항은 1970년 중화학공업 단지를 조성할 당시 급격한 도시화 진행
 - 이에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 조선업 쇠퇴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 등 지역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거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거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적극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 등 비교적 우수한 관광자원도 보유
- 옥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패러다임 전환
 - 조선업 침체에 따른 옥포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 쇠퇴, 도시 노후화 등 지역적 문제 해결, 지역 성장 동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지역의 잠재력, 유·무형 지역 자산, 우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 상업·문화·관광이 융복합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활력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또한, 옥포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방안을 추진, 관광객 및 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활성화 계기 마련
- 2019년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구보고서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재생방향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 첫째로 상권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나타남
 - 다음으로 재생활성화를 위한 핵심거점공간, 문화·예술기반 재생 순
 - 이후 순위로는 지역공동체 및 인적자원 육성, 관광활성화, 노후 주거지정비, 기초생활 인프라구축 순으로 나타남
- 이에 거제시와 옥포에 지역 정체성, 장소성 등 담은 ‘문화예술’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고자 함이 목적
- 이후 점진적으로 “명품 문화예술 관광도시, 거제시”의 비전과 정책 방향설정

1) 거제시(2019),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2절 연구 기간 및 범위

1. 연구 기간

○ 기간: 2021년 6월 25일 ~ 2021년 9월 24일

2.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980번지 일원
- 면 적: 144,000㎡
-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그림 1-1〉 공간적 범위 출처: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1년
- 목표연도: 2020년~2023년(4개년, 향후 2년)

□ 내용적 범위

- 도시재생
 - 도시재생 배경, 문화적 도시재생, 선행연구 분석

○ 문화예술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 문화예술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배경 및 필요성, 현황 및 트렌드, 국내외 사례분석
- 문화예술 도시재생 활성화 사례분석
- 국내사례: 인천아트플랫폼, 부산 고려제강 F1963,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 국외사례: 스페인 빌바오프로젝트, 영국 게이츠 헤드, 프랑스 낭트, 일본 나오시마

○ ‘문화예술’ 통한 옥포항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 비전 및 정책 방향 설정
- 핵심 추진과제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과업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한 후, 관련 선행연구 등 이론적 검토를 통해 예술관광의 당위성을 파악
- 이후 예술관광 트렌드와 사례 조사를 통해 비전 및 정책 방향과 추진사업 도출.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도시재생, 문화적 재생, 문화예술관광,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 관련 연구 논문 및 중앙정부 및 산하(연구)기관, 타 지자체, 주요 연구소 등이 발행한 연구보고서와 사업(업무)계획서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문화예술 도시재생 활성화 사례분석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분석

□ 사례 연구

- 문화예술 도시재생 활성화 사례 연구
 - 국내외 우수사례
 - 해외 예술관광 도시 우수사례

□ 활성화 방안 제시

- 추진 방향 설정, 핵심 추진과제 도출

제2장 환경분석

제1절 현황분석

제2절 문화유적·관광지 현황

제3절 산업·경제 현황

제1절 현황분석

1. 옥포동 일반현황(거제시청 2021.01.28)

○ 연혁

- 1935.10.01 장승포읍 옥포리
- 1986.12.01 장승포읍 옥포출장소
- 1989.01.01 장승포시 옥포1동
- 1995.01.01 거제시 옥포1동

○ 옥포1동 관내도



〈그림 2-1〉 옥포1동 관내도

○ 행정구역 및 인구

표 7 옥포1동 인구

면적	세대수	인구수			리반		법정리(6)
		계	남	여	통	반	
2.12km ²	3,595	7,370	3,999	3,371	12	79	옥포동

○ 공공기관 및 문화 복지시설

- 교육시설 : 2개교(초1, 중1)
- 금융시설 : 3개소(농협1, 우체국1, 새마을금고1)
- 경찰관서 : 1개소(해경출장소1)

- 복지시설: 4개소(성지원1, 경로당3)

○ 지역특성

- 문화재: 옥포성 대우조선해양(주)의 배후도시로 상업, 업무, 유통, 위락시설 밀집지역
- 외국인 수: 1,004 명
-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공동체 중심지역

○ 년도 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거제시의 사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옥포동의 사업체는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 2-1〉 사업체수 및 종사자(개, 명)

구분	거제시			옥포동						
	사업체	종사자	증감율	사업체	종사자	증감율	옥포1동		옥포2동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2009년	12,474	106,253		2,423	8,455		1,036	4,125	1,387	4,330
2010년	12,834	108,420	2.89	2,427	9,150	0.2	1,044	4,900	1,383	4,250
2011년	13,387	111,747	4.31	2,481	9,446	2.2	1,068	5,307	1,413	4,139
2012년	13,812	116,935	3.17	2,469	9,259	-0.5	1,041	5,307	1,428	3,952
2013년	14,161	123,552	2.53	2,461	9,815	-0.3	1,059	5,829	1,402	3,986
2014년	14,962	135,206	5.66	2,421	10,565	-1.6	1,041	6,259	1,380	4,306
2015년	15,328	135,715	2.45	2,470	9,792	2.0	1,070	5,637	1,400	4,155
2016년	15,649	130,703	2.09	2,467	9,032	-0.1	1,095	5,041	1,372	3,991
2017년	15,765	118,008	0.74	2,428	8,870	-1.6	1,029	4,760	1,399	4,110

○ 지명연혁

- 영조 45년(1769) 방리개편으로 옥포와 조라의 두방이었는데 고종 26년(1899) 옥포, 조라, 국산의 삼리가 되었다가 1915년 6월 1일 옥포리로 통합 법정리가 되었고, 1942년 5월 1일 부락(마을)구제로 팔랑포가 구분되었으나 1989년 1월1일 장승포시 설치에 따라 옥포마을을 옥포1동으로 10통을 두었고, 조라, 국산, 팔랑포와 덕포를 관할하는 옥포2동의 28통을 행정동이 되었으나 법정동의 옥포동과 덕포동은 그대로 있음

○ 지명유래

- 옥포는 본래 옥개라 하였고 조라(助羅)는 옥개의 동편에 나호라 이름하는 호수가 형성되어 옥포진의 군선이나 어선들의 풍량을 피하는 항구의 역할을 하였으니 별릴라와 도울조의 뜻이었으며, 국산(菊山)은 옛날 뒷산에 참나무가 많아 진목정(眞木亭)이라 하였는데 고종23년(1866년) 천주교가 들어왔으나 유교가 국가이념인 나라의 박해가 심하여 들국화가 만발하는 국산으로 바뀌었다고 전래되고 있으며, 팔랑포는 본래 거제도 서쪽의 소랑포의 상대성 지명이므로 동쪽은 파랑포(波浪浦)로 부르고 있음

제2절 문화유적·관광지 현황

1. 옥포 문화유적·관광지 현황²⁾

〈표 2-2〉 옥포1, 2동 문화유적지&관광지

도지정(기념물)	제104호 옥포정	옥포동 150-1
전통사찰	옥포성당	경남 거제시 옥포로 12길 22 구(지번)주소 옥포동 543-7
관광지	옥포대첩기념공원/주상절리	경남 거제시 팔랑포2길 87길 22 구(지번)주소 옥포동 산 1-1
	덕포해수욕장, 짚라인	경남 거제시 덕포동 364-4
섬&섬길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옥포도항·중안공원·기념공원 덕포·대계(김영삼 생가)

○ 옥포대첩기념공원³⁾

- 지정일: 1957년 6월 12일 기념탑 건립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팔랑포2길 87 (옥포동)
- 종류/분류: 공원
- 규모: 넓이 10만 9398㎡
- 1973년 옥포조선소가 기공됨에 따라 기념탑과 옥포정을 아주동 탑곡마을에 이전
- 그러나 역사적 위상에 비해 그 규모가 협소하여 위치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이곳 부지를 확보하여 1996.6.22. 준공·조성
-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옥포만에서 왜선 50여 척 중 26척을 격침시킨 옥포대첩을 기념하여 조성
- 옥포해전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첫 승첩으로 이후의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는 계기
- 1957년 6월 12일에 기념탑을 세웠으며, 1963년에는 옥포정을 완공
- 1973년에 옥포조선소가 들어서며 기념탑과 옥포정을 아주동 탑곡마을로 이전
- 그러나 주변이 협소하여 1991년 12월부터 현 위치에 재건하기 시작
- 높이 30m의 기념탑과 참배단·옥포루·팔각정·전시관 등을 건립하여 1996년 6월에 개원
- 이중 '충(忠)' 자를 형상화한 참배단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있음
- 전시관은 옥포해전 당시의 해전도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

2) 거제도 이야기

<https://cafe.daum.net/storygeoje/TfPg/15?q=%EA%B1%B0%EC%A0%9C%EC%8B%9C%20%EC%98%A5%ED%8F%AC%20%EA%B4%80%EA%B4%91%ED%98%84%ED%99%A9>

3) 거제시청 홈페이지

https://tour.geoje.go.kr/user/smarttour/view.geoje?basicSid=219&culturalStyle=A08&menuCd=DOM_000008505003001000&pageIndex=2&searchType=BASIC_TITLE&basicSection2=&searchKeyword=

- 옥포루는 전망대를 겸하고 있는 팔각 정자
- 공원에서는 매년 이순신 장군의 제례행사가 열리며, 6월 16일을 전후하여 약 3일간 옥포대첩기념제전이 열림



〈그림 2-3〉 옥포대첩기념공원



〈그림 2-4〉 옥포대첩 승전기념비

- 옥포만호비(玉浦萬戶碑)
- 관광자산 현황
 - 한려수도의 해양관광도시로서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섬, 바다, 산 등 가는 곳 마다 이어지는 경이로운 자연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 옥포동에는 덕포해수욕장과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위치

2. 거제시 문화유적·관광지 현황

○ 거제시 문화유적

- 국가지정문화재 7개, 도지정문화재 38개, 향토문화재 41개가 분포
- 문화재 현황(자료: 거제시(2019),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표 2-3〉 거제시 문화유적

구분		역사자원	개수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아비도래지, 학동 동백림과 팔색조 번식지	2
	명승	해금강	1
	사적	둔덕기성, 거제현 관아	2
	등록문화재	거제초등학교 본관, 학동 진석중 가옥	2
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거제 외포리 석조약사여래좌상,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 혜양사 완호 작 불화 일괄, 거제향교, 오량석조여래좌상, 장목진객사	7
	기념물	가라산 봉수대, 가배량성, 강망산 봉수대, 거제고군현치소지, 아주동고분군, 하청복사지, 고현성, 구영등성, 구울포성, 구조라성, 덕포 이팝나무, 명진느티나무, 사등성지, 오량성, 옥녀봉 봉수대, 옥산성지, 옥포성, 와현봉수대, 외간 동백나무, 윤돌섬상록수림, 지세포 지석묘, 지세포봉수대, 지세포성, 학산리 지석묘, 한애리 모감주나무군	25
	문화재자료	외도 공룡발자국 화석, 세진암 목조여래 삼존불좌상, 포로수용소, 아양리 삼층석탑, 장문포왜성, 청곡리 지석묘	6
향토 문화재	문화유적	송덕비군, 김영삼 대통령 생가, 남산패총, 내도패총, 다대산성, 대촌 지석묘, 망산 봉수대, 명진리 유적, 반곡서원, 법동리 분청도요지, 산달도패총, 송정리 지석묘, 수월산성, 술역리 내평숲, 실전리 지석묘, 아주현성, 오수리 토기 산포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옥포만호비, 옥포정, 울포산성, 이수도 패총, 제기 및 고서적, 창동 무문토기 주거지, 하청리 토기 산포지, 화도 봉수대	26
	고분유적	광리 지석묘, 도봉골 지석묘, 동리 고분군, 방하리 고분군, 소동리 지석묘, 술역리 지석묘, 오송리 고분군, 외간리 고분군, 죽토삼거리 고분군, 중리 지석묘, 하청리 지석묘, 학산 영등포 지석묘	12
	전통사찰	세진암, 예념미타도량참법, 총명사	3

○ 인물 현황

- 거제에는 옥포대첩으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문학가, 예술가, 항일운동가 등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하는 등 거제의 명성을 알리는 인물들이 계속하여 배출



우암 송시열

충무공 이순신

성파 하동주

청마 유치환

무원 김기호

여산 양달석

〈그림 2-5〉 거제시 인물 현황-1



윤택근

지한명

신용기

소남 신용우

김영삼

문재인

〈그림 2-6〉 거제시 인물 현황-2

○ 거제시 관광 현황⁴⁾

- 거제 9경 9미 9품
- 9경: 거제해금강(일명 갈곶도, 갈도), 바람의 언덕 & 신선대, 외도보타니아,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동백섬 지심도, 여차홍포해안비경, 공곶이 & 내도, 거가대교
- 9미: 거제대구탕, 거제굴구이, 멍게&성게비빔밥, 거제도다리썩국, 거제물메기탕, 거제멸치쌈밥&회무침, 거제생선회&물회, 바람의 핫도그, 불락구이
- 9품: 거제대구, 거제멸치, 거제유자, 거제굴, 거제돌미역, 거제맹종죽순, 거제표고버섯, 거제고로쇠수액, 왕우럭조개

〈표 2-4〉 거제 9경 9미 9품

9경	9미	9품
거제해금강(일명 갈곶도, 갈도)	거제대구탕	거제대구
바람의 언덕 & 신선대	거제굴구이	거제멸치
외도보타니아	멍게&성게비빔밥	거제유자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거제도다리썩국	거제굴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물메기탕	거제돌미역
동백섬 지심도	거제멸치쌈밥&회무침	거제맹종죽순
여차홍포해안비경	거제생선회&물회	거제표고버섯
공곶이 & 내도	바람의 핫도그	거제고로쇠수액
거가대교	불락구이	왕우럭조개

4) 거제시청 홈페이지 www.geoje.go.kr

제3절 산업·경제 현황

1. 산업 현황⁵⁾

○ 산업별 현황

- 옥포동은 대부분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거제시의 사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옥포동의 사업체는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옥포동 연도별 사업체현황

- 총 2,428개의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이 577개(23.8%), 숙박 및 음식점업이 837개(34.5%)로 절반 상이 상가, 음식점 등 서비스업임
- 최근 8년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 외의 업종은 큰 차이가 없음
- 대상지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가시설 및 숙박시설이 주된 경제 소득 원인 골목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옥포동 연도별 종사자현황

- 8,870명의 종사자 중 도매 및 소매업이 1,498명(16.9%),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80명(25.7%)으로 서비스업에 다수 종사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조선업의 불황으로 근로자수가 급감
- 대상지의 주된 업종이 서비스업인 것이 비해 옥포동의 인구가 줄어들며 경제가 쇠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크나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

2. 지가 및 매매가

○ 공시지가별

- 공시지가가 50만원~100만원인 토지가 20,706㎡(19.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제방 등 공시지가가 없는 미표기 필지가 33,686㎡(34.6%)를 차지

5) 거제시(2019),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구역계 경계선 위주의 대지는 공지시가가 높으며 구역계 내부로 들어갈수록 공지시가가 낮음

○ 주택 가격별

- 건축물의 절반 정도인 163개(54.0%)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음
- 163개의 건축물 중 2억 미만의 건축물이 109개(66.9%)로 대다수를 차지
- 주로 공동주택과 신축건물이 높은 가격 양상을 보이고 있음

3. 지역 상권 현황

○ 상권현황 분석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상업지역이고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로 성장하여 상권이 발달되어 왔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상권정보의 업종으로 구분한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총 798개의 업체 중 음식업이 498개(62.4%)로 대부분을 차지
- 인근 대우조선해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식당 및 유흥주점, 숙박업으로 업종이 편중
-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상가들이 많아지며 대상지 내 공실이 급격히 발생

○ 인근 상권 현황

- 대상지 주변의 옥포동 생활권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업종은 총 2,141개의 업체 중 음식이 983개(41.7%), 소매 676개(28.7%)로 나타남
- 타 지역과 비교해서 공실률이 낮았으나 경제 불황이후 급격하게 높아져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소규모상가의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

4. 물리적 현황

1) 토지 현황

○ 규모별

- 대상지 내 토지 개수의 절반 이상인 342개 54.6%가 과소필지(150㎡ 미만)로 구성

○ 소유별

- 대상지는 사유지가 93,087㎡, 64.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유지가

35,846㎡, 24.9%, 국유지가 13,730㎡, 9.5%를 차지

- 공유수면이 1,337㎡ 포함
- 국·공유지는 주로 도로, 제방 등을 구성하고 있고 사유지는 대부분 주거지로 이용

○ 지목별

- 대상지는 대지가 97,894㎡, 6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로가 29,183㎡, 20.3%를 차지
- 대지는 대부분 상가, 숙박시설, 주거지로 이용
- 대상지 동쪽 부근은 옥포항이 있어 제방, 잡종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용도지역·지구

- 대상지는 상업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녹지지역이 동측(자연녹지지역)에 분포
- 수변공원과 옥포항만 근처의 10,708㎡(7.4%)는 현재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미지정지
- 대상지 내 옥포성 잔존지 주위로 보존지구가 일부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15개소(중로 2개, 소로 13개), 주차장 2개소, 소공원 1개소가 지정

2) 건축물 현황

○ 허가현황

- 구역제 내 총 413개의 건축물 중 111개(26.9%)가 무허가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의 대부분은 창고나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 용도별

- 건축물의 대다수인 125개(41.4%)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주거시설이 89개(29.5%)로 구역 내 건축물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이 차지
- 옥포항 주변으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주로 분포해 있으며 도로변을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분포

○ 구조별

- 건축물의 절반 이상인 170개(56.3%)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어져 있는데 주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로 사용

○ 층수별

- 302개의 건축물 중 대부분인 218개(72.2%)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일부 지어진지 얼마 안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고층건물이 거의 없음
- 고층건물은 옥포항 주변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숙박시설로 주로 이용

○ 연면적별

- 건축물의 63.5%인 192개의 건물이 연면적 600㎡ 미만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소규모 건축물
- 연면적이 넓은 건축물은 주로 숙박시설이 많음

3) 기반시설 보급률

- 거제시의 공원은 총 124개로 1인당 공원 면적은 0.745천㎡
- 거제시의 도로는 총 322.2m의 연장으로 도로 밀도는 0.80km/㎢
- 노인여가복지시설 320개,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 노인의료 복지시설 5개, 재가노인복지 시설 10개, 장애인복지생활시설 3개, 아동복지시설 14개로 총 35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1만 인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13.5개
- 노인여가복지시설 320개,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 노인의료 복지시설 5개, 재가노인복지 시설 10개, 장애인복지생활시설 3개, 아동복지시설 14개로 총 35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1만 인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13.5개
- 공공체육시설 수는 130개로 1만 인당 공공체육시설 수는 4.9개

○ 기반시설현황

- 옥포동에는 공영주차장 5개와 도시공원 16개, 초등학교와 도서관 3개, 노인교실 1개 등이 있으며 소매점이 69개로 제일 많음
- 주차장 3개소는 도로변을 활용한 유료공영주차장
- 대상지 내 기반시설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이 있음
- 옥포동 전체 기반시설에서는 약국과 의원, 경로당, 생활체육시설이 많으나 약국과 의원은 한곳에 밀집해 있고 생활체육시설과 경로당은 북측의 아파트 단지 위주로 분포하여 대상지 내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
- 소공원은 옥포1동주민센터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옥포매립지 주차장은 공영유료주차장, 옥포매립지 주변 주차장은 현재 도로로 사용
- 주변 주차장은 현재 도로로 사용

4) 생활SOC 현황

-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 포함된 생활권 7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시설은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나타남
- 등급이 낮은 분야는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으로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생활기초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대상지 내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아서 다른 기초생활시설에 비해 어린이 관련 시설들의 입지가 적음
- 공영주차장은 1등급으로 나타났으나 근처 소매점 현황 등의 여건을 보면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함
- 옥포에 공급이 가장 시급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한 73명의 주민설문조사 결과 총 189개의 응답 결과가 나타남
- 그 중 시립공영주차장이 44개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도시공원이 33개로 2위, 도서관과 수영장이 21개로 공동 3위, 노인교실과 체육단련장이 공동 5위로 나타남
- 국토부 제공 생활SOC 결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이 1등급으로 나왔으나 단순 거리상 수치인 생활SOC 결과와 달리 상업지역 및 공공업무시설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주차장인 것으로 나타남

제3장 문화적 도시재생

제1절 도시재생

제2절 문화적 도시재생

제3절 선행연구 분석

제4절 유관사례 분석

제1절 도시재생

1. 도시재생의 개념

- 도시의 재개발(redevelopment) 프로그램을 일컬으며 주로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도시가 쇠퇴하였을 때 활용되는데, 현대적인 도시재생의 시도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1940년대 후반 일어난 공황 타격을 위한 도심 재건축 정책에 따른 불균형 심화 이후 실시
 - 최근 도시재생의 형태는 지역·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소 및 사회적 환경을 재생에 기반한 사회·생활적 재생계획·추진 확대
 - 이러한 문화기반 재생은 문화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정체성)과 현지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 내포⁶⁾
- 재생(再生)의 사전적 개념은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
- 도시재생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작
 - 국외의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은 낙후된 도시를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의 물리환경, 산업·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등 도시의 모든 분야를 부흥시킨다는 포괄적 의미
 -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정비 사업이 물리 환경의 개선에 치중되던 것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도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부분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의 정비 개념
- 국내 도시재생의 의미는 국외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도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었거나 쇠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비사업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능을 새롭게 하거나 기존기능을 활성화하는 것⁷⁾
-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제2조에서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⁸⁾

6) 이익주(2018).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방법과 결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분석, 17-28호

7) 이일화·이주형(2011).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pp.101-114.

8) 한국은행 목포본부(2015). 목포 원도심 쇠퇴실태와 도시 재생방안.

제2절 문화적 도시재생

1. 문화적 도시재생 개념

- 현대도시는 산업구조와 경제적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대규모 자본에 의해 도시가 개발되고, 도시 개발의 효율성을 얻기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짐
-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만을 고려한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는 정체성을 잃고 획일화된 도시환경이 조성
 -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재개발 사업과는 차별화된 도시재생전략이 등장하였고, 이 중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복지 환경을 개선시키고 도시민의 삶과 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오희택, 2011)⁹⁾.
- 문화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는 도시를 단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문화 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풍부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듦으로써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문화를 도시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하나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이루는 문화적 현상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도시가 생산하는 문화를 말함
 - 따라서 한 도시의 문화를 말하는 것은 물리적 의미의 도시 편의시설에서부터 생활 형태와 문화적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말함(김철수, 2001)¹⁰⁾
- 이처럼 문화는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도시가 가지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도시의 문화산업 활성화와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으며, 도시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음
 -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적 도시재생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음(윤현석, 2011)¹¹⁾

9) 오희택(2011). 문래동의 장소성 변화와 문화 매개 도시 재생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0) 김철수(2001).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11) 윤현석(2011).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문화를 매개로 하여 지역이 가진 문화적 여건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 도시재생은 “지역의 장소성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최우선시한 자생적 도시재생전략”을 말함
 - 즉, 도시가 가진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 단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문화 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풍부한 도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듦으로써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살기 좋고,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¹²⁾

12) 이나영·안재섭(2014). 서울 서촌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 1호, pp.15~27.

제3절 선행연구

1. 도시재생 선행연구

1)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¹³⁾

- 본 논문은 도시재생 환경의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도시재생 정책과 제도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도시재생정책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도시재생의 연구동향과 개념적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사업 현장의 한국적 토양과 시장구조를 검토. 또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방법과 제도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적 시장구조와 현장 상황에 적절한 도시재생의 접근방법과 조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인구저성장 시대의 교외부 도심재생 정책을 중심으로¹⁴⁾

- 1980년대 중반 대도시를 비롯한 특히, 교외지역 도시에서는 도심 상주인구 감소, 활동의 위축, 공공업무기능의 저하, 기반시설 노후화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고, 지역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도시는 매력을 잃고 크게 쇠락해 가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만 이하 수도권 교외부 도시들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절·중심·거점·정주 기능 등으로 유형화한 기능별 규명과 함께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중소도시들의 법제도적 지원방안,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외부 도심재생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

3)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¹⁵⁾

-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요소를 발굴하고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

13)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 행정 학보, 26.3, pp.1-22.

14) 박채운·이주형(2009).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1, pp.89-102.

15) 이일희·이주형(2011).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pp.101-114.

- 결론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과 휴식을 위한 장소, 그리고 기존 주민에 대한 배려와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소로 분석됨

4)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방도시 재생방안 - 태안읍을 중심으로¹⁶⁾

-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그 발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지방소도시인 태안읍 구도심을 재생,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
 - 일반적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의 도시재생전략은 물리적, 문화적 사안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 간 네트워크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태안 지역의 도심쇠퇴현상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도시의 물리적 환경측면, 지역경제 낙후측면, 교외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그것
- 쇠퇴하는 태안읍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도심쇠퇴원인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정리하면
 - 첫째, 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및 경관조성으로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
 - 둘째, 지역경제재생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축제와의 연계 방안을 통해 태안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셋째, 도심재생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도시의 관광기능의 역량을 향상시켜 관광객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
- 이를 태안군 전체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방안으로 수립

16) 이경찬·민용기·김남조(2014).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방도시 재생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5, pp.67-91.

2. 문화적 도시재생 선행연구

1)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비교 연구 - 전주시 및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¹⁷⁾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적 재생의 실제 사례인 전주시와 군산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화적 재생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문화적 재생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두 도시의 문화적 재생전략을 살펴본 결과, 두 도시 모두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공통점
 - 전주시의 경우는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된 도시한옥마을을 매개로한 전통문화 재생사업이 추진
 - 군산시는 개항기에 건립된 근대건축물을 매개로한 근대문화 재생사업이 추진
 - 전주시의 경우는 문화적 재생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전통문화 축제와 이벤트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
 - 군산시의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케팅 전략으로서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만드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2) 서울 서촌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한 연구¹⁸⁾

-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문화적 도시재생전략에 중점을 두고, 기존 도시들의 재생 사례를 기초로 유형을 분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도시재생의 6가지 유형별 전략을 서촌에 적용하여 연구
 - 분석 결과 서촌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전략을 각각의 문화적 특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문화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낙후된 도시 이미지 개선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전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해 기존 산업화 시대의 건축물이나 구시대의 유산 등에 문화를 접목하여 도시라는 공간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면 도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각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의 반영이 가장 중요하며, 서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전략들은 지역주민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17) 윤정란·여옥경·장성화(2012).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비교 연구 -전주시 및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6.3, pp.321-332.

18) 이나영·안재섭(2014). 서울 서촌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pp.15~27.

3)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생 사례를 통한 공간의 의미 재생산에 관한 연구¹⁹⁾

- 과거의 사회 구조에서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던 시뮬라크르(simulacre, 복제)가 해체 혹은 붕괴되면서 변형된 부정적 시뮬라크르를 긍정적으로 재생한 해외의 문화 재생 우수사례는 우리 사회가 도시 공간의 재생에 있어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 그러나 우리 지자체의 사회적, 물리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외국의 문화 재생 사례의 벤치마킹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경험
- 따라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별적 수용이 필요

4) 지역 가치 증진을 위한 장승포 폐 여객선 터미널의 활용 방안 및 브랜드 제안에 관한 융합 연구

- 본 연구는 장승포 폐 여객선 터미널과 그 일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
- ‘유희 산업시설의 사례’를 조사하고 양상을 파악하여 활용방안과 브랜드를 제안하는 융합연구(convergence study)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승포동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여 장승포 폐 여객선 터미널의 재활용 방향을 수립하는 것
- 연구 결과는
 - 첫째, 사례 조사 결과 최근 국내외 유희 산업시설의 재활용은 건축물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되 지역 환경과 쓰임에 적합한 현대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음
 - 또한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 경제적 활성화를 추구
 - 둘째, 거제시 지역특성 조사 결과 여객선 터미널의 운항 중단 이후 주변 상권이 침체되었으며, 거제시는 여객선 터미널의 재활용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승포 폐 여객선 터미널을 국제항으로 추진
 - 셋째,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지역주민이 장승포 폐 여객선 터미널의 기능 복원에 찬성하며, 지역 내 문화 공간의 부재에 따른 문화적 욕구충족을 원한다고 답하였음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제시 장승포동 폐 여객선 터미널의 재활용 방안으로 지역적

19) 김상원·이종영(2012).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생 사례를 통한 공간의 의미 재생산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25), pp.115-139.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여객선 터미널의 기능을 복원하고,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적합한 장승포 폐 여객선 터미널의 새로운 브랜드명과 디자인 안을 제안하여 거제시의 지역 가치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

제4절 유관사례 분석

1.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²⁰⁾

- 남해군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은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 관광산업 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참여
- 국내 최초의 ‘관광중심형 중심시가지 유형’의 사업
-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활성화와 인구 증대, 시장 활성화가 목표



〈그림 4-1〉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청사진)

- 첫 번째, 남해읍 사업지의 관광혁신거점 조성사업
 - 이 사업은 남해군의 창업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아카데미가 지어질 예정
 - 관광창업 아카데미에서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보 창업자들을 모아 다양한 분야의 창업 교육을 운영
 - 창생플랫폼은 남해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

20) 보물섬 남해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mhae_gun/222488712144



〈그림 4-2〉 창생플랫폼은 2022년 탄생할 예정

- 두 번째, 주민활력증진을 위한 가로환경 및 주민휴게공간 개선사업
 - 관광특화가로 구간
 - 보행과 운전의 편의를 위한 도로포장과 벽화사업을 병행
-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문화공방 조성사업
 - 경남도립남해대학, 시장변영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상가 운영사업
 - 남해전통시장 내에서 식음점포를 운영
 - 기존에 시장이나 읍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 관광객 참여 유도가 목표인 사업
 - ‘바라’는 남해의 바래길, 그리고 내일과 비전을 모색, 그 결과물을 ‘바라본다’는 의미
 - ‘다랑’은 각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지형을 이루는 남해의 관광명소 다랭이논에서 착안
 - 바라와 다랑에서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기획,
 - 군내 동아리의 활동들을 전시하는 쇼룸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운영



〈그림 4-3〉 청년센터 ‘바라’



〈그림 4-4〉 청년학교 ‘다랑’

○ 네 번째,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사업

-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 스스로 이런 마을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사업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 주민공모사업과 뉴딜대학
- 남해군의 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남해군민 누구나 주민공모사업에 도전가능
- 2020 작년에는 남해를 추억할 수 있는 향기로 디퓨저와 섬유 향수를 만든 ‘프루스트 공작소’팀, 유희지를 아담한 공원으로 가꾼 ‘목공소’팀,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하는 알뜰장터를 운영한 ‘우분트’팀을 비롯
- 총 8개 팀이 성황리에 사업을 마무리
-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13개 팀이 현재 활동 중에 있음



〈그림 4-5〉 우분트의 알뜰장터



〈그림 4-6〉 목공소의 포켓공원

2.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²¹⁾

1) 사업명: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 위치, 면적: 경남 통영시 도남로 195 일원 509,687㎡
- 사업내용: 마중물 사업, 주거지역 재생, 폐조선소 부지 재생
- 사업기간: 2018~2023 (6년)



〈그림 4-7〉 텅 빈 통영 폐조선소 모습

- 이 도시재생사업은 통영시 도남동 일원의 폐조선소와 주변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사업
- 국고보조로 창업지원시설 (통영리스타트플랫폼), 복지시설, 주민소통공간과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폐조선소 부지에는 민간투자를 통해 숙박, 상업, 업무, 주거와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
-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관광도시이자 조선 산업의 메카인 통영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 국내외 경제 불황 장기화와 코로나 19등 악재로 조선 산업이 붕괴한 통영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 통영만은 조선소 부지를 활용, 도시재생사업 추진
 - 이 도시재생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오래전에 사용되던 폐조선소 부지가 1차 대상으로 국비 250억, 지방비 471억,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1200억, 민자 2800억 원 등 약 5421억 원이 투입되어 옛 자산을 다시 재활성화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2023년 완공 목표
 - 2015년 파산한 신아 sb 조선소 부지와 주변 부지를 글로벌 문화 및 관광 거점으로 거듭 난다는 계획

21) 도시재생뉴딜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newdeal4you/222089916362#>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통영 지역 청장년층의 새로운 출발을 지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
 - 통영만은 공공기관 제안 경제기반형으로 국토교통부와 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의 주요 배경
- 신아 sb 조선소 부지에 들어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통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창업 교육 및 12스쿨 기획 운영을 위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 주민공동체 및 마을기업 육성 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플랫폼
 - 수변 문화 공간인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조성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추진 경과: 뉴딜사업 선정 ('17.12) → 국제설계공모 ('18.4~9) → 활성화 계획 고시 ('19.9) → 공기업 예타 승인 ('19.10)

2)통영리스타트플랫폼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이 2019.12.12(화) 개소
- 대지:2,011㎡, 건축물: 1,024㎡,
 - 연면적: 5,024㎡(6층)
 - 사업비:150,8억원(국비68.2억원)



〈그림 4-8〉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출처: 경상남도 공식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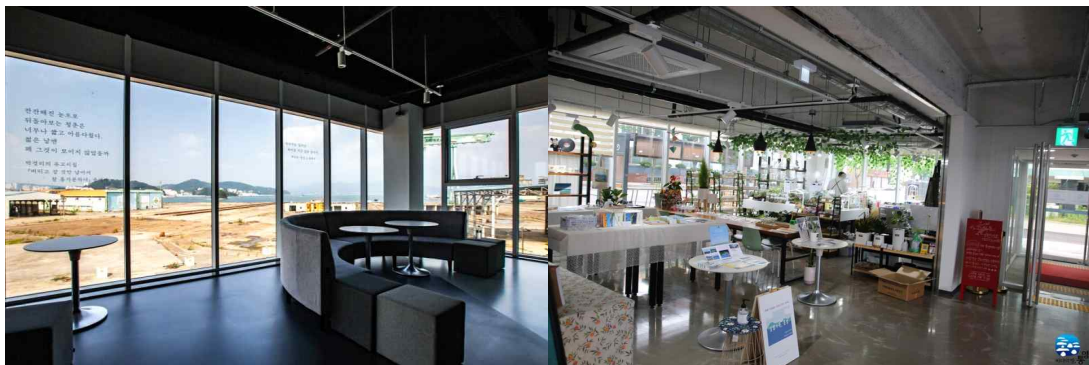
〈그림 4-9〉 조선소 크레인

〈그림 4-10〉 야외무대 공간 예정

〈그림 4-11〉 조선소 시설물

(출처: 경상남도 공식블로그)

-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조선업 침체로 문을 닫은 폐조선소의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창업 지원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 통영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안, 2017년 12월 선정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 중 핵심 사업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면적 20~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
 - 통영리스타트플랫폼 6층 건물(연면적 5,024㎡) 중 1~2층은 이벤트 홀과 지역 소통 공간, 3~4층은 재취업 창업 교육장과 창업 공간, 5~6층은 창업 지원공간이 배치되며, LH에서 운영을 지원 (2년간 24억 원)
 - 특히 4층에는 문화예술이나 관광여행과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들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창업LAB)이 마련되며, 총 50개 팀이 신청하여 18개 팀이 최종 선정
 - 또한, 5층 "12스쿨 기획 운영센터"에서는 배 제작, 음악, 공방, 관광, 여행, 바다 요리 등 통영의 미래를 이끌 12개 교육실습 과정을 운영, 지역에서 창업을 유도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남해안 여행학교'와 통영 음악학교'를 시범 운영



〈그림 4-12〉 스타트플랫폼 내부 1

〈그림 4-13〉 스타트플랫폼 내부2

(출처: 통영시 공식 블로그)

3) 봉평동 봉숫골

○ 책과 음악, 커피가 머무는 골목 ‘봉숫골’

- 봉숫골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진행
- 로컬 서점, 출판사, 전혁림 미술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골목 구석구석 위치
- 봉숫골은 관광지이자 통영의 오래된 주거지로서 관광객, 소상공인, 주민이 상생하는 골목으로 거듭



〈그림 4-12〉 봉숫골 골목 1



〈그림 4-13〉 봉숫골 골목 2
(출처: 도시재생뉴딜 공식블로그)

○ 주민이 직접! 주민프로젝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발돋움

- 봉평동 봉숫골 주민프로젝트팀은 ‘봉숫골 골목대장’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선정
- 통영 봉평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봉평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주민공동체로 오는 10월 국토부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음
- 2017년 11월 첫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대학, 주민 리더 교육, 사회적 경제교육 등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활동 진행
-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더욱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이어나갈 예정



〈그림 4-14〉 봉숫골 골목 3



〈그림 4-15〉 봉숫골 골목 4
(출처: 도시재생뉴딜 공식블로그)

제4장 문화예술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제1절 문화예술관광

제2절 지속가능관광

제3절 관광 현황 및 트렌드

제4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

제1절 문화예술관광

1. 문화예술관광 개념

- 문화관광은 ‘문화’라는 용어의 특성상 광범위한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데,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하위 개념으로는 예술관광(arts tourism),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민속관광(ethnic tourism) 등이 있음²²⁾
 - 예술관광(arts tourism)은 문화관광의 하위 개념으로서 예술적인 유인물(attraction)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 예술은 주제별로 분류하면 공연예술, 시각예술, 예술축제 이벤트, 문학으로 나누어짐
- 강원발전연구원(2014)²³⁾은 문화예술관광을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미적 욕구를 문화 및 예술을 통해 해소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회화, 조각, 문학과 같은 정적 예술 감상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소비형태도 문화예술관광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였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²⁴⁾은 예술관광 모델을 제시하며 문화예술관광을 예술시설, 예술유산지, 예술콘텐츠 등 예술자원을 대상으로 주목적·다목적 및 부수적·우연적 방문을 통해 관람, 체험과 학습하는 행태의 관광이라고 정의
- 창원시정연구원(2017)²⁵⁾은 대중문화예술형, 순수문화예술형, 역사문화예술형으로 구분
- 선행연구의 문화예술관광의 개념과 유형적 정의를 살펴볼 때 문화예술관광은 문화관광과 예술관광이 결합 및 확대된 개념

22) 이형문(2012). 문화자본과 예술관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3) 강원발전연구원(2014).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문화예술관광 상품 개발, 강원논총, 8(8). pp.100-119.

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

25) 창원시정연구원(2017). 창원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절 지속가능관광

1. 지속가능관광 개념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nachhaltiger Tourismus)이라는 개념은 환경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발전론상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관광 분야에 접목시킨 파생용어
 -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해당 지역의 자원이용, 자연환경과 문화의 보전을 기하면서 관광지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관광객의 만족을 동시에 달성하는 개념으로 정의(조용헌, 2003²⁶⁾; 김재민, 1999)²⁷⁾.
- 지속가능관광 개념 정립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는데, 김재민(1999)은 포괄적 성향의 지속가능한 관광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한 관광 자원의 환경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으로 변하였다고 보았고, Wheeler(1993)²⁸⁾는 실천성보다는 정치적인 도구로 자주 사용된다고 비판하였으며, 조용헌(2003)²⁹⁾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공론화 된지 십여 년이 지나서도 실천적인 개념보다는 대중관광개발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자주 사용된다고 비판
-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Bramwell & Lane, 1993)³⁰⁾
- 지속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수단 또는 목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 또한 있어 왔는데, Hunter & Shaw(2007)³¹⁾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분리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은 경계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개발을 위한 해결책(Gossling, 2002³²⁾; Lane, 1994³³⁾; Liu, 2003³⁴⁾; Liu et al., 2013³⁵⁾; Saarinen, 2006³⁶⁾), 규제 및

26) 조용헌(2003). 관광연구에서의 지속성 개념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6), pp.125-137.

27) 김재민(1999).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경영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3, pp.99-117.

28) Wheeler, B.(1993). Sustaining the ego,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2), pp.121-129.

29) 조용헌(2003). 관광연구에서의 지속성 개념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6), pp.125-137.

30) Bramwell, B. & B. Lane(1993).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tourism: The potential and the pitfall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2), pp.71-80.

31) Hunter, C. & J. Shaw(2007). The ecological footprint as a key indicator of sustainable tourism. Tourism Management, 28, pp.46-57.

32) Gossling, S.(2002). Global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ourism.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2,

개발의 방식과 편익을 확보하는 방법(Bramwell & Lane, 2012)³⁷⁾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국내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관광이 관광산업과 자연환경, 지역사회의 욕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다양한 욕구의 균형점을 찾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현상으로 보고 있음(강신겸 외, 2004³⁸⁾; 김남조 외, 2004; 김주년, 2004³⁹⁾; 김태현 외, 2016⁴⁰⁾; 유정우, 2007⁴¹⁾; 이원희 외, 2005⁴²⁾)

pp.283-302.

- 33) Lane, B.(1994). Sustainable rural tourism strategies: A tool for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2), pp.102-111.
- 34) Liu, Z.(200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 critiqu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1, pp.459-475.
- 35) Liu, C. H., G. H. Tzeng, M. H. Lee & P. Y. Lee(2013). Improving metro-airport connection service for tourism development: Using hybrid MCDM model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6, pp.95-107.
- 36) Saarinen, J. (2006). Traditions of sustainability in tourism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 pp.1121-1140.
- 37) Bramwell, B. & B. Lane(2012). Towards innovation in sustainable tourism research?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0(1), pp.1-7.
- 38) 국토연구원:경기도(2004).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 39) 김주년(2004). 지속가능관광개발지표(STDI)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40) 김태현·박숙진·김주리(2016).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체계와 관광정책의 역할: 서울 북촌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2(2), pp.71-90.
- 41) 유정우(2007). 지속가능 관광개발 및 사회자본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관광거버넌스간의 구조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42) 한국문화정책연구원(200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계획모델에 관한 연구.

제3절 관광 현황 및 트렌드

1. 10대 한국관광 트렌드⁴³⁾

○ 2020~2024년 관광 트렌드 키워드는 “NEXT TRAVEL”로 요약

- 여행의 일상화 속에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경향성을 내포
- 또한 현재와 다른 다음(next) 단계로의 변화 및 진화,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시장(관광객) 측면에서 볼 때, 여행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 나갈 핵심 시장이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Z세대로 확장되었고, 고령인구의 여행경험 성숙에 따라 구매력과 활동성을 겸비한 뉴시니어 층이 관광소비시장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산업 측면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과 플랫폼 비즈니스, AI 관광, 관광부문의 공유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 관광자원(목적지) 관점에서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일상공간으로 관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의 영역이 확장할 것으로 전망
- 이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이자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현재보다 더 성숙한 다음 단계의 여행 시대(NEXT TRAVEL)가 열릴 것

○ ‘소소한 여행: 소확행, 가심비, 가시비’

- 여행에 대단히 큰 비용과 일정을 소비하기 보다는 일상에서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 차원에서 여행을 즐길 것으로 보임
- 여기에 가격 대비 본인이 가치를 두는 곳에 시간을 소비하고자 하는 ‘가시비’ 트렌드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

○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 여행객들의 여행 경험도가 높아지면서 마을, 골목, 시장 등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일상 공간에 대한 여행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
- 더욱이 새로운 여행지를 찾으려는 관광객 욕구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책적 지원 등이 맞물려 지역주민들의 일상 공간이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
- 다만 지역주민들의 일상 공간이 여행에서 진정성을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주

43) 박주영(2019). 2020-2024 한국관광 트렌드 전망. 한국관광정책(78), pp.12-19.

목받으면서 현지인처럼 살아 보기와 같은 여행 행태를 만들어 냈으며,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

○ ‘경험소비, 여행 액티비티 전성시대’

-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경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형태 증가와 맞물려, 관광에서도 기억할 만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관광명소와 랜드마크 방문 위주의 관광에서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 위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여행을 새로운 자기 충족 방법의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개인 관심사에 따라 여행을 즐기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기존 패키지 여행보다 개별 여행을 선호하고 이때 현지 투어프로그램을 별도로 예약해 즐기는 경우가 증가 추세

○ ‘누구나 즐기는 여행: 은퇴에서 100세까지’

-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및 삶의 질과 행복 추구,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등으로 인해 이제는 특정 세대나 계층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여행을 즐기게 되었고, 여행이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
-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과거에 비해 구매력과 지출의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에도 능해 향후 관광소비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상당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낮은 취업률과 소득 수준은 여가 및 관광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저비용 시간소비형 여행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 유지되는 등 국내 시니어층의 관광소비는 양극화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또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보장과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여행 트렌드 세터, 뉴 제너레이션’

- 자유롭고 개성 넘치며 자존감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삶의 재미와 만족을 추구하는 Z세대가 향후 여행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나갈 핵심 시장으로 전망
- 밀레니얼 세대는 국내 및 해외여행 경험에서 나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희소성, 정체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고 나를 위한 아낌없는 여행 소비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혼자 하는 여행’, ‘따로 또 같이 여행’ 패턴은 Z세대까지 지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유티래블(유튜브+트래블)’, ‘여행스타그램(여행+인스타그램)’ 등의 SNS 영상 콘텐츠가 여행 동기와 목적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되는 한편, 1인 미디어 등장과 활용으로 인해 여행 정보가 기존의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전환되고 정보 생산과 소비의 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다이내믹 방한시장, 유동성과 다변화’

-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관광은 한중일 외교 정세, 남북 관계 등 외부환경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한국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면서 방한 인바운드 시장은 기존에 편중되어 온 동북아 지역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관광시민, 여행 가치를 생각하다’

- 국민 의식과 지적 수준이 향상되고 여행 경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관광을 통해 가치를 소비하고 가치를 실천하려는 인식과 움직임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임
- 관광 총량의 지속적 증가와 주민들의 일상공간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져 주민과 관광객 간의 접촉이 잦아짐에 따라 이들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관광의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담론에서 ‘관광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데까지 논의가 확대

○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여행 서비스 유통구조는 여행 플랫폼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
- 여행객의 측면에서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는 똑똑한 소비자의 등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FIT 여행의 증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 탐색, 상품예약, ‘경험’을 공유하고 소비하는 여행행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 중 숙박부문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편리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글로벌 OTA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있으며, 여행 정보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빅데이터가 여는 AI 관광시대’

- 빅데이터의 실시간 추적과 분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관광 목적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면서, ‘집단 지성’에 따른 개인 맞춤형 여행 정보 제공이 고도화되고, 여행 콘텐츠 경험 및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
- 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행업 부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ChatBot)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여행 추천에서부터 컨시어지 기능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토털 케어로 확대

- 숙박업 부문에서는 IoT와 AI가 결합하면서 객실 예약, 체크인 및 체크아웃, 룸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다방면 서비스로 확대

○ ‘공유, 여행 공간 이동 경험을 잇다’

-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광 부문에서도 숙박 공유, 모빌리티 공유 등 여행행태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관광객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 현지 교통, 현지 여행상품, 현지 음식 등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
- 관광객은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가격비교를 넘어서 현지의 ‘진정성’있는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
- 이러한 변화는 기존 업체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며, 새롭게 등장한 안전 등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요구되기도 함
- 또한, 공유경제가 변질하여 거대 기업화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

2. 2020 핵심 관광트렌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5년 마다 핵심 관광트렌드를 선정 발표(2020)

- ICT 기반 융복합관광
- 3S(Safe, Sustainable, Social)존중 여행 확산
- 모바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광생태계
- Outdoor Recreation 여행
-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여행
- 슬로우 트래블
-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DIY여행
- 관광의 신 소비층 중장년층
- 실속형 관광소비 정착 등

제4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

1. 2021년 국내 관광 핵심 키워드

-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회복 기대감의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 ‘B.E.T.W.E.E.N.’이 2021년 국내관광의 핵심이 될 전망⁴⁴⁾
- 이번 분석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치유형 여행’, ‘근교중심 여행’, ‘유명 관광지 이외 새로운 목적지로의 여행’, ‘소수 여행 동반자와 유대강화’ 등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여행 흐름을 이끌어 냈음을 알 수 있었음
- 동시에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고 독특한 여행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2021년도 국내관광 현상을 ‘B.E.T.W.E.E.N.’ 7개 키워드
 - ① 균열(Break)
 - ② 위로(Encourage)
 - ③ 연결(Tie)
 - ④ 어디든(Wherever)
 - ⑤ 강화(Enhance)
 - ⑥ 기대(Expect)
 - ⑦ 주목(Note)으로 정리

① Break(균열)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산업의 변동

- 코로나로 인한 여행수요 급감으로 여행정보 공유 및 여행콘텐츠를 소개하는 움직임이 감소하는 등 기존 여행산업은 변화 일로에 있음

② Encourage(위로) : 위로를 전하는 일상 속 소소한 힐링여행

- ‘힐링’과 ‘소확행’을 목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위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소셜미디어 상에서 힐링&일상여행에 대한 언급 비중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며, 위생·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비대면, 캠핑 등 키워드 언급량 또한 전년 대비 증가

44) 한국관광공사

<https://kto.visitkorea.or.kr/kor/notice/news/press/board/view.kto?id=442807>

③ Tie(연결) : 더욱 끈끈해진 인근 지역과의 네트워크

- 숙박을 포함한 장기여행보다 카페·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여행이 인기를 끌며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
-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위축되면서 권역내 근거리 이동이 강화돼, 기존 수도권으로 집중됐던 권역 간 이동이 전국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런 흐름에 따라 향후 동일 권역에 속한 지역 간 네트워크는 더욱 결속될 것으로 예측

④ Wherever(어디든 관광지) :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이 여행명소

- 국내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관심과, 유명 관광지 외 새롭고 색다른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국내 여행지와 관련해 유튜브 등의 언급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중심의 알려진 곳보다는 봄비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섬이나 소도시 등 색다른 여행지에 대한 언급 비중이 증가

⑤ Enhance(강화) :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행

-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유대감이 강한 가족, 커플, 친구 등 동반자와의 여행이 선호
- 패키지 여행에 대한 언급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 다수 타인과의 여행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

⑥ Expect(기대) :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여행에 대한 갈망

- 코로나 확산으로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행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존재
- 코로나 이전의 자유로운 여행을 추억하는 동시에 여행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

⑦ Note(주목) : 변화의 사이 속, 주목받는 New 여행 형태

- 코로나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여행형태가 주목
- 재택근무 실시로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며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 호텔 재택 등 일상과 색다름을 병행할 수 있는 여행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또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 주는 무착륙여행 등 대체상품이 기획되고 있음
- 실제 작년 4분기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언급된 ‘한 달 살기’, ‘호텔재택’, ‘무착륙여행’ 등과 같은 키워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0% 증가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2. 2021년 여행트렌드

□ 2021 여행트렌드, ‘광란의 밤’ 가고, 단확행·친자연 득세⁴⁵⁾

○ ‘코로나 구급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액티비티는 국민의 70% 지지율을 보인 “여행” 이 4가지 선택지 중 압도적 1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12월 조사]

○ ‘광란의 밤’ 배척, 다중운집 기피 뚜렷= 국민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여행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

-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감염병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고, 이 같은 목표에 따라 2021년 여행이 시작되면 비슷한 맥락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전망.

○ 익숙한 곳, 멀지 않은 곳, 지속가능한 곳으로 떠난 가족소풍의 평화로운 풍경 [부킹닷컴 제공]

- 즉, ① 소규모
- ② 단확행
- ③ 자연 무대 액티비티
- ④ 가족 중심 & 은둔 프라이빗
- ⑤ 실내기피
- ⑥ 광란의 밤 기피
- ⑦ 확진자 많았던 지역 기피
- ⑧ 환불·변경 잘해주는 여행사·호텔·리조트·항공사 선호
- ⑨ 소도시, 나만의 수간모옥 선호
- ⑩ 여행 전·후·여행연기 때 언제든지 랜선여행 이용
- ⑪ 대규모 단체 박리다매 사라져 가성비 따지기 정교화
- ⑫ 개성을 존중한 맞춤형 테마상품 인기 등 트렌드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문가, 전문가 관들은 예상

○ 평창, 몽펠리에, 데본의 인기가 주는 시사점

- 익스피디아는 2020년 1~9월 자사를 이용했던 검색-예약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청, 전라, 경상지역 소도시의 인기가 평균적으로 상승했으며, 대전, 평창, 양양, 거제, 목포의 선호도가 상승

○ 나만의 여행지 소도시 [익스피디아 제공]

- 프랑스인들의 자국여행에서는 몽펠리에, 니스 등 남부의 소도시가, 영국인들의 국내여행

45) 헤럴드경제(2021.01.07). 2021 여행트렌드, ‘광란의 밤’ 가고, 단확행·친자연 득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7000140>

은 비교적 한적한 지역인 데본, 컴브리아 등의 상승세가 돋보였다고 전함

- 숙소의 특성으로는 아파트호텔, 콘도 및 콘도형 리조트 등 단독 가용 공간이 넓은 숙소의 선호도가 높았음
- 외부 활동을 줄이고 객실 내 취사와 취식이 가능한 옵션을 선호
- 재택근무 추세 때문에 평일에 호텔을 찾는 '워케이션(work-ation)'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

○ 은둔형 독채 리조트가 올해 큰 인기 [켄싱턴 제공]

- 대규모 단체&박리다매 줄어 가성비 따지기 정교화= 익스피디아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내년 트렌드에
- ① 예측가능성이 높은 국내여행의 선호
- ② 위생, 비대면을 중시하는 안전여행
- ③ 환불 정책이 좋아 순발력 있게 행선지 등을 포함시킴
- 또 ① 시기 변경을 도모하고 즉흥, 즉행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여행'
- ② 직접 가지 않고 가보고 싶은 곳의 음식, 자취 등을 느끼는 '꿈꾸는 여행'
- ③ 방역성적이 우수하고 우정이 두터운 나라끼리만 교류협정을 맺는 양자간, 소규모 다자간 트래블 버블 등을 제시

○ 대규모 단체관광을 통한 박리다매가 사라지면서, 여행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성비를 정교하게 따지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전망

- 대규모 단체 이동 등을 통한 박리다매가 사라지면서 보다 정교한 가성비를 도모하는 움직임도 커질 전망
-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단확행) 도모= 향후 여행 트렌드는 ①길들여진 곳, ②'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단확행)을 주는 곳, ③가까운 곳, ④환경친화적이며 늘 가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행, ⑤디지털 등 기술지향 강화, ⑥안전제일주의, ⑦일터와 휴식터 구분의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

○ 단확행 [부킹닷컴 제공]

- '단확행' 여행의 세부 종류별 선호도는 등산, 신선한 공기, 자연 속 여행, 우리 동네 자세히 살펴보기, 간다 간다 하면서 미처 가보지 못한 곳, 자주 가본 익숙한 여행지 등의 선호도가 높았음
- 전 세계 응답자들은 또 '앞으로는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점에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냄
-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 같은 업무수행, 워크케이션: 회사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숙소

서 원격 업무를 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음

- 정해진 사무실에서의 ‘9 to 6’ 근무환경에서 탈피해 ‘워크케이션’ 하려는 기류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

○ 워크케이션 [신세계조선 제공]

- 아울러 감염병 예방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79%), 방문을 피하려는 여행지가 있다(59%), 관광지에서도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길 기대한다(70%) 등 안전여행의 의지가 강했음
- ‘위생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응답자의 64%가 동의했으며, ‘숙박시설 역시 최신 기술을 접목해 더욱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3%가 공감
- 여행편의-안전여행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됨

○ 해운대 요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공]

- 랜선여행 오프라인과 연계 인기 지속= 부산관광공사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 ① 전통적인 인기지역 보다는 을숙도 생태공원 등 나만 아는 여행지 선호
- ② 여행지 선택 요인 중 맛집, 미식 탐방의 최상위권 유지
- ③ 집콕랜선 인프라 확충에 따른 변화. 여행전(정보습득), 여행후(추억회상) 또는 여행 연기(아쉬움 달래기) 등 언제든 랜선여행 선호 등을 새 트렌드에 포함
- ① 개인 취향의 세분화에 따른 맞춤형 테마투어 수요 증가
- ② 같은 종류의 여행지라도 개별 특장점별로 선호도 분산(이를테면 해수욕장의 경우 해운대는 호캉스, 광안리는 사진(인생 샷), 송정은 서핑, 일광은 오션뷰 카페, 임랑은 캠핑(차박), 송도는 케이블카, 다대포는 일몰)
- ③ 요트, 서핑, 트레킹, 캠핑, 숲, 수목원 등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한 액티비티 등을 새 여행트렌드로 제시

○ 캠핑 [휘닉스 제공]

- 등산, 캠핑, 혼펜, ○○클래스 접목형: 문체부 관광벤처 출신인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설립은 25-35세대가 69%를 차지하는 100만 회원들의 액티비티-여가활동 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 ① 등산 여행 강세
- ② ‘혼펜(혼자서 즐기는 펜션 여행)’의 확대
- ③ 캠핑의 강세
- ④ ‘홈하비(Home Hobby)’족의 확대

- ⑤ 공예, 쿠킹, 댄스클래스 접목
- ⑥ 말키트, DIY 키트 등 집콕 홈키트 상품 인기 등을 새 트렌드로 제시
- G마켓은 캠핑과 차박, 독채펜션이 인기를 끌었음을 들어, 올해
 - ① 근거리 여행
 - ② 실내 여행시설이 아닌 야외활동
 - ③ 대규모 단체가 아닌 가족단위
 - ④ 자연친화 등 여행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3. 포스트 코로나 7대 여행 트렌드

□ '포스트 코로나' 7대 여행 트렌드..."近거리·長기 여행 뜬다"⁴⁶⁾

- 가깝고 익숙한 여행지의 매력상승
- 재택 장기화로 장기 여행 각광
- 가상현실 등 기술 결합도 가속

○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정보 기업 부킹홀딩스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8개국 2만여 명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저 검색 패턴 및 선호사항 관련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여행의 미래' 모습을 도출

1) 트렌드 1: 가깝고 익숙한 여행지의 매력

- 코로나19 시대에 급부상한 여행 트렌드 중 하나인 국내여행의 인기에서 엿볼 수 있듯 여행객들이 먼 곳 보다는 가까운 혹은 익숙한 여행지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전 세계 응답자의 절반가량(47%)이 '7개월에서 12개월 안에 국내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38%는 '보다 장기적으로(1년 이상 후에) 국내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음
 - 국내 응답자의 43%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국가 내에서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여행지'로, 46%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지'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응답자 중 절반(50%)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가본 적이 있는 익숙한 여행지'를 선택하고자 한다고 답했음

2) 트렌드 2: '장기여행'의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과 여가시간을 적절하게 결합한 장기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3분의 1 (37%) 이상의 응답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 숙소 예약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만큼, 장기간 여행지에 머무르며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워크케이션'이 인기를 끌 전망

46) 조선일보(2020.10.22). '포스트 코로나' 7대 여행 트렌드..."近거리·長기 여행 뜬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0123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form=MY01SV&OCID=MY01SV

- 여행 플랫폼과 숙박업체들은 디지털 노마드의 원활한 업무를 가능케 하는 와이파이 등의 시설이 구비된 청결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숙소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
-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이 '출장지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답해 직장인들의 여행 행태 뿐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출장 역시 변모할 것으로 예상

3) 트렌드 3: 안전이 제일

-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행객 역시 보건 및 안전 조치를 중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 될 것으로 보임
- 설문에 참여한 전 세계 여행객의 79%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고, 자연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객 안전을 위한 업계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
- 응답자의 59%는 '방문을 피하고자 하는 여행지가 있다'고 답했으며, 70%는 '관광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또한 '숙소에서 보건 및 위생 관련 정책을 명시한 경우에만 예약을 진행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70%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4분의 3(75%)이 '항균 및 살균 제품을 사용하는 숙소를 선호한다'고 밝혔음
-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지양하겠다'는 응답자가 거의 절반(46%)에 이른 것으로 보아, 여행객의 교통수단 선호도와 교통편 제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4) 트렌드 4: '지속 가능한' 여행

- 전 세계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향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코로나19 사태가 특히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큰 역할
- 실제로 응답자의 3분의 2(69%) 가량은 '여행업계가 보다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많은 여행객이 '성수기(51%)'와 '사람이 몰리는 곳(48%)'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여행지를 선택할 것으로 답했음
- 이를 통해 향후 여행객 유치를 위해서는 밀집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 전망

□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은 어떻게 변할까?⁴⁷⁾

-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미국 관광 업계의 전망
 - 대표적인 여행 관련 웹사이트 TripAdvisor는 2021년 하반기 중에 미국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관련 수요도 급격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초 실시한 글로벌 여행자 설문조사(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응답자의 47%가 2021년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77%가 백신접종 확대로 국내외 여행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답변
 - 또한, Expedia가 실시한 미국 내 설문조사에서도 밀레니얼(1981~1996 출생)과 Z세대(1997~2012 출생)에서 여행 수요의 급증을 예상하며, 전체 응답자 평균 3444달러,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5462달러의 여행비용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
- 여행정보지 Ecobnb는 코로나19 이후 다소 외진 시골이나 자연을 찾는 아웃도어 관광(Outdoor Tourism)과 자동차를 이용해 숙박까지 해결하는 ‘노마드’(Nomad) 여행이 각광받고 있다고 전함

47) 해외시장뉴스(2021.06.04.). 美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미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771>

제5장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 사례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해외사례

제1절 국내사례

1. 인천아트플랫폼⁴⁸⁾

-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해안동 1가)에 위치
 - 인근 지역은 1883년 인천 개항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193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장소적 가치가 높은 곳
 - 또한 “1888년 건립된 일본 우선주식 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해 군회조점(郡廻漕店)(1902), 해안동 창고(1933), 금마차 다방(1943), 대한통운 창고(1948)” 등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 개항기 건축물을 개조한 창작공간
 - 출범 준비 과정에서 2세대 창작공간을 지향한다는 점과 도시재생의 유의미한 사례⁴⁹⁾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음
 - 또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과 한국건축가협회의 국무총리상과 한국건축협회상을 수상하면서 건축적 가치를 인정
- 인천아트플랫폼은 “새로운 예술창작 발전소, 국제 네트워크 형성의 플랫폼,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활성화의 코어, 문화 생산자로서의 시민 예술 향유의 광장”을 지향하는 창작공간
 - 또한, 이러한 지향을 실천하고자 “다원 장르 예술창작 환경과 프로그램 지원, 국내외 예술가들의 네트워킹과 예술 교류, 해외 기관과 교류와 협력 관계 형성, 기획 사업 강화와 대안적 문화공간 구축,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와 문화매개자 양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www.inartplatform.kr)



〈그림 5-1〉 해안동 창고 1(1933)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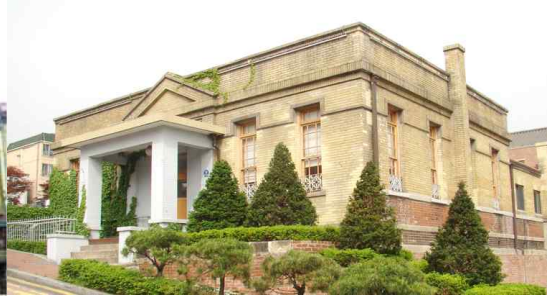
〈그림 5-2〉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2009) After

48) 공주형(2020). 지역문화 분권의 관점에서 창작공간 운영 프로그램 연구: 인천아트플랫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2권 1호, pp.31-42.

49) 김미옥(2009). 지역의 문화진흥정책과 문화예술경영의 접목-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2), pp.203-214.



〈그림 5-3〉 일본우선주식회사(1888) Before



〈그림 5-4〉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사무실(2016) After



〈그림 5-5〉 금마차다방(1943) Before



〈그림 5-6〉 인천서점(2018) After



〈그림 5-7〉 대한통운 창고2(1948) Before



〈그림 5-8〉 공연장(2009) After

2. F1963(구 부산 고려제강)⁵⁰⁾

○ F1963은 과거 고려제강의 공장으로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던 공장건축

-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와이어 생산을 하던 공장은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현재는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공간



〈그림 5-9〉 (좌)1963년-고려제강 수영공장 설립, (중)2008년-고려제강 수영공장 생산 종료, 설비 이전, (우)2016년- 복합문화공간 F1963으로 재탄생 (출처: <http://www.f1963.org>)

○ 2014년 부산 비엔날레 특별 전시장으로 사용

○ 2016년 리모델링을 거쳐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재탄생, 그 후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

- 기존 건물의 골조와 건축형태를 남기고 공장의 중앙부에는 중정을 만들
- 중정을 통해 내부 공간이 분리시켜 각 공간을 분절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중앙의 열린 공간을 통해 외부의 활동이 중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공용공간을 배치
- 이 중정으로 인해 전체 공간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사이 공간에서의 차경이 가능
- 건축 재생을 하며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던 크고 작은 기계와 부품들을 인테리어 역할을 하는 전시품으로 곳곳에 남겨 놓았음
- 특히 건축의 골조와 주요 부재를 거의 남겨두고 리모델링한 부분은 기존 건축과 어울리도록 재료나 질감이 유사한 금속, 콘크리트 등을 주로 사용
- F1963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장건축이 가지는 대공간을 짜임새 있게 잘 프로그램화 시킴
- 층고가 높고 내력벽 없이 철골구조로 대공간을 형성하는 실내공간을 장점으로 이끌어 냄



〈그림 5-10〉 복합문화공간 F1963 (출처: <http://www.f1963.org>)

50) 최지연·여영호(2020). 메트로 폰티의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건축 재생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 64호, pp.363-374.

3.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⁵¹⁾

○ 미술관이 된 담배공장…청주에 들어선 ‘한국판 테이트모던’

-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충북 청주에서 문을 연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국내서 처음으로 ‘보이는 수장고’를 운영
- 1986년 경기 과천, 1998년 서울 덕수궁, 2013년 서울 소격동에 이은 네번째 국립현대미술관
- 이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으로 과천관은 건축·디자인·공예 등 시각 예술, 덕수궁관은 국내외 근대 미술, 서울관은 동시대 미술, 청주관은 수집·보존·전시·교육 등으로 특화



〈그림 5-11〉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본관
출처: 조선일보



〈그림 5-12〉 미술관 외벽 전시장
출처: 조선일보

- 청주관은 국비 578억원을 들여 폐담배공장인 청주 연초제조창 남관 공장을 새롭게 단장
- 1946년 문을 연 청주 연초제조창은 1999년 폐업할 때까지 한국 최대 규모의 담배공장 (12만 2181㎡)으로 해마다 담배 100억 개비를 생산
- 폐공장을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탓에 화력발전소에서 세계적 미술관으로 발돋움한 영국 ‘테이트모던’에 비견
- 특히 주목할 것은 청주관에서는 국내 미술관 처음으로 ‘보이는 수장고’가 운영된다는 점



〈그림 5-13〉 미술관 워크숍에 참여한 관람객



〈그림 5-14〉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1층 수장고

51) 한계례(2018.12.04.). 미술관이 된 담배공장…청주에 들어선 ‘한국판 테이트모던’.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873070.html#csidxfc4fc38de57bbabb9665738c55ce207>

4.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⁵²⁾

- 기후가 따뜻하고 토지가 비옥한 만경 평야 지역에 위치한 삼례읍은 일제강점기에 양곡 수탈의 중심지
 - 삼례문화예술촌 전신인 삼례 양곡창고는 삼례역 철도와 만경강 수로를 이용해 군산으로 양곡을 이출하는 기지 역할을 담당
 - 해방 이후 농협이 인수하여 양곡창고로 사용되다가 2010년부터 방치되었고 우범지역으로 여겨지게 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창고를 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2년 '삼례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3억의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 13억을 들여 문화예술촌 개발 용역을 본격화, 2013년 6월 5일 문화와 예술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담은 삼례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⁵³⁾
- 또 완주군은 현재의 <삼례문화예술촌>을 확장하여 삼례역 일대에 2022년까지 아트체험장과 예술인 창작 공간, 경관농업, 풍경길 조성, 마을경관 개선, 상생공원 조성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잇는 문화마을을 계획



〈그림 5-15〉 삼례문화예술촌·책마을 (출처: 완주군청 www.wanju.go.kr)

52) 문연옥(2017). 농촌지역 공간 재생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53)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 <http://www.samnyecav.kr/>



〈그림 5-16〉 (좌)모모미술관, (중)소극장 시어터애니, (우)디지털아트관 (출처: 완주군청)



〈그림 5-17〉 (좌)문화카페 프레, (우)삼례책마을 (출처: 완주군청)



〈그림 5-18〉 (좌)김상림박물관, (중)커뮤니티 munchi, (우)책공방 북아트센터 (출처: 완주군청)

- 삼례문화예술촌은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즐거워해야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설립 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음
- 설립목적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공분야, 지역과의 소통 등 공공성을 띄고 조성된 것을 확인
- 삼례문화예술촌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 입주할 예술가를 미리 선정하는 것
- 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때는 시설 및 공간과 같은 하드웨어를 먼저 구축하고 이후 예술가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나 삼례문화예술촌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입주 예술가를 미리 선정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예술인으로 TF팀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협의를 통해 개발

제2절 국외사례

1. 스페인 빌바오⁵⁴⁾

- 빌바오(Bilbao)는 유럽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Iberia Peninsula)에 위치해 있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Basque Country)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심 도시
 - 철광 등의 자원이 풍부한 칸타브리아(Cantabria) 해변지역에 위치하여 철강 및 조선 산업으로 융성했던 바스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공업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하다가 1920년대 철강자원의 고갈과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철광, 기계, 조선소의 지역 기반 산업 붕괴로 이에 통합되어 있던 부속 산업과 서비스 체계도 연쇄적으로 붕괴
 - 기반 산업 붕괴로 인해 도시가 침체되며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
 - 1975년에는 3.2%였던 실업률이 1980년대 중반에는 25%가 되었고, 청년 실업률도 50%에 달함
 - 1975년 60,000개에 달하던 생산 관련 직업은 1995년 반으로 줄었음(Ploger 2008)⁵⁵⁾



〈그림 5-19〉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출처: wikimedia commons)

54) 양윤서(2017), 도시재생 측면에서 본 구겐하임 효과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7권 제4호, pp.43-52.

55) CASE Report 43(2008). Bilbao City Report.

-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구도 감소되었으며, 바스크 독립운동 단체(ETA)의 테러와 항구 오염, 홍수, 전염병, 도심의 심각한 교통 혼잡과 기반 시설 낙후로 도시는 심각하게 오염되고 노후 된 상태
 - 1980년대 말 빌바오와 바스크 당국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 기반 산업붕괴로 인한 침체와 오염되고 노후 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 1980년에서 1990년까지 강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 정비 사업을 시작
 - 1991년 바스크 정부와 구겐하임 재단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설계 공모를 하였고, 프랭크 게리가 당선되어 미술관 설계를 맡았음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부지 면적은 32,500m² 이고, 전시 공간은 이 중 11,000m² 면적, 19개의 갤러리로 구성
- 1991년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1997년 10월 개관⁵⁶⁾



〈그림 5-20〉 스페인 빌바오 Nervion River embankment in Bilbao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56) 양윤서(2017). 도시재생 측면에서 본 구겐하임 효과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7권 제4호, pp.43-52.

2. 영국 게이츠헤드⁵⁷⁾

- 게이츠헤드는 영국 북동부 지역의 뉴캐슬시와 타인(Tyne)강 사이에 위치한 인구 20만의 소도시
 - 과거부터 석탄, 조선, 철강산업이 발달하였던 중공업 도시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적인 제조업의 몰락으로 게이츠헤드시 또한 쇠퇴
 - 많은 공장들이 연달아 폐업을 하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이주하였기 때문
- 1980년대 이후 게이츠헤드시는 문화주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수행, 기존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
 - 1998년 북쪽의 천사를 세움
 - 이 조형물의 건설을 시작으로 밀레니엄 브릿지, 발틱현대미술관, 세이지 게이츠헤드 음악당 등 설립
 - 또한 수준 높은 문화공연 및 전시를 유치, 지역 주민들과 소통
 - 이는 관광객의 증가를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1) 영국 게이츠헤드시의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 게이츠헤드시의 문화주도 도시재생은 여러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자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문화교육을 하며 점진적 진전
-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점차 활성화되고 뉴캐슬시와 더불어 약 6만 명이 문화산업에 종사할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일어나 20%가 넘는 실업률이 4%대로 떨어짐
- 또한 한 해 평균 2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게이츠헤드시에 방문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관광 수입으로 매년 약 40억 파운드를 벌어들임

2) 영국 게이츠헤드시의 성공요인

- 영국 게이츠헤드시의 문화주도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관 주도의 성격을 띠는데도, 급하게 추진되지 않고 도시가 지닌 문화자원을 오랫동안 자세히 분석하고 추진
- 특히 경제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해나간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
- 그렇기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실용적이고 질 좋은 문화자원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례들에도 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철저히

57) 김서희·박치완(2017). 문화주도 도시재생을 통한 컬처노믹스 사례 분석 -영국 게이츠헤드를 중심으로-, 한국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pp.71~74.

게 지역에 대하여 분석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

3) 영국 게이츠헤드시의 문화자원

① 북쪽의 천사(Gateshead Angel of the North)

- 북쪽의 천사는 1998년 영국인 조각가인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에 의해 게이츠헤드시의 북쪽에 건설
- 이 영국 최고 높이 22미터 조형물은 도시의 이정표
- 쇠퇴한 탄광촌에서 희망과 문화의 상징으로 발돋움하려는 의미
- 게이츠헤드시를 대표하는 조형물

② 밀레니엄 브릿지(Millennium Bridge)

- 이 다리는 2001년에 만들어졌으며, 영국정부가 사업공모를 실시했는데 게이츠헤드시가 사업에 선정되어 다리를 건설
- 밀레니엄 브릿지는 윌킨슨 에이어(Wilkinson Eyre)의 설계로 지어진 타인강을 가로지르는 첼제 다리
- 타원형의 다리로,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브릿지
- 하루에 두 번씩 배가 지나갈 때마다 브릿지의 상판이 90도 위로 들어올려졌다 내려오는 구조



〈그림 5-21〉 북쪽의 천사
(출처: 영국 뉴캐슬 여행)



〈그림 5-22〉 밀레니엄 브릿지
(출처: 경북일보-굿데이 굿뉴스 www.kyongbuk.co.kr)

③ 발틱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제분소 건물을 개조한 발틱현대미술관은 1982년 폐업 후, 철거비용문제로 방치되어 있던 제분소 건물을 문화시설로 탈바꿈
- 이 미술관은 기존의 문화가치를 살려 건물 벽면에 그려진 ‘발틱제분소(Baltic Flour Mill)’라는 글자를 그대로 보존
- 개관 이래 50여 개국 300여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음

④ 세이지 게이트헤드 음악당(the Sage Gateshead Music Center)

- 세이지 게이트헤드 음악당은 영국의 대표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의 설계로 ‘소리 고동’ 이미지 아트센터 건설
- 2004년 12월 개관한 후 세이지 음악당은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 대중적인 락 콘서트 등의 다양한 음악 공연이 1년에 약 450회가 열림



〈그림 5-23〉 발틱 현대미술관 (출처: 영국 뉴캐슬 여행) 〈그림 5-24〉 세이지 음악당(The Sage Gateshead)
(출처: 피그말리온의 예술과 여행 블로그)

3. 프랑스 낭트⁵⁸⁾

- 일드낭트(île de Nantes) 사업은 서대서양도시권개발공사(Société d'aménagement de la métropole Ouest Atlantique : SAMOA)가 2003년에 설립되면서 착수
 - 일드낭트의 도시프로젝트 관리와 창조공장(creative factory)활성화 임무를 담당
 - 2011년 일드낭트 서쪽에 낭트의 창조허브를 조성하기 위하여 창조지구 클러스터가 설치
이 창조지구(면적15ha)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고등교육, 문화조직과 연계하여 각종 활동과 시설(교육, 연구, 문화, 여가, 경제)을 마련⁵⁹⁾
 - 일드낭트 창조지구에는 쓸모없는 조선업 인프라에 예술을 접목하여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레 마신 드 일(Les Machine de lile)’이라는 기계동물 테마파크 설치
 - 이 프로젝트는 19세기 프랑스 과학소설의 개척자인 쥘 베른(Jules Verne)의 고향을 내세워 스팀펍크(steampunk)식⁶⁰⁾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버려진 자원과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목표
 - 이 테마파크는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2007년 개장 이후 계속 진화
 - 2007년에 움직이는 대형 ‘기계 코끼리(Grand Eléphants: 높이 12m, 길이 12m, 52명 탑승)’를 시작으로 시조새, 거미, 애벌레 등을 추가
 - 2012년에는 고철로 만든 오징어, 새우, 소라, 게 등으로 구성된 ‘대형 회전목마(Carrousel des mondes marins: 높이 25m, 300명 탑승)’를 설치
 - 이 해저기계는 대서양까지 이동하는데 수심에 따라 생물의 종류가 달라짐
 - 2017년 7월에 낭트메트로폴은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
 - 이 프로젝트는 쥘 베른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을 받아 구상된 움직이는 거대한 강철나무인 ‘헤론나무(L'arbre aux Hérons: 높이 25m, 가지 22개, 20명 탑승)
 - 이 헤론나무는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
 - 실물의 5분 1로 축소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이 2018년에 전시장에 설치되어 홍보 중
- 낭트는 도심인 일드낭트 창조지구의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대도시권 차원에서 문화·창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제구조의 성공적 전환과 함께 이미지 향상에 기여
 - 2012년에 문화·창조산업에서 전체 고용의 9%인 36,400명의 일자리 창출, 창조직업 성장에서 전국 2위

58) 배준구(2019).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과 시사점-마르세유와 낭트 사례로, 지중해지역연구, 제21권 제1호, pp.103-132.

59) 낭트 섬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https://www.creativefactory.info/cluster/international/>

60) 20세기 산업발전의 바탕이 되는 첨단기술 대신에 증기기관과 같은 과거 기술이 크게 발달한 가상의 과거나 그런 과거에서 발전한 가상의 현재나 미래를 배경

- 2014년에 창조지구 기계동물테마파크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으로 선정
- 각종 조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



〈그림 5-25〉 기계 코끼리 (출처: <https://www.lesmachines-nantes.fr/>)



〈그림 5-26〉 시조새

(출처: <https://www.lesmachines-nantes.fr/>)

〈그림 5-27〉 오징어

(출처: <https://www.lesmachines-nantes.fr/>)

4. 일본 나오시마⁶¹⁾

- 나오시마는 일본 세토내의 섬둘레 16km의 작은 섬으로 과거 구리 제련소가 있던 곳
 - 20여 년 전만 해도 공해와 폐기물 등 심각한 오염으로 구리 제련소 폐쇄 이후 한때 8,000여명의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고 황폐화
 - 이곳 나오시마는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기업 '베네세' 재단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 1987년부터 이 섬을 예술과의 접목으로 현대건축과 현대미술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되기 시작
 - 일본의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섬 전체의 설계를 맡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명소가 됨



〈그림 5-28〉 나오시마 미야노무라 포구 (출처: 네이버캐스트)

-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프로젝트의 개발 현황
 - ① 1987년 나오시마의 토지 매입: 섬의 절반, 약 10억엔
 - ② 1992년 베네세하우스 조성: 안도 다다오 설계, 현대미술관과 호텔 기능을 하나로 묶은 체류형 미술관으로 소장된 전시 작품들은 미술관 설계단계부터 작가와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의 협업에 의한 전시공간을 연출
 - 나오시마에만 존재하는 작품 즉 ‘장소 특정적’(site specific) 작품으로 제작
 - 미술관 안에는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브루스 나우만, 잭슨 폴록, 리차드 롱, 조나단 보롭스키, 안토니 고펜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전시
 - 야외 작품은 나오시마의 랜드마크화된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비롯, 깎아지른 해변 절벽에 설치된 스기모토 히로시의 사진과 니키 드 생팔 조각 등 섬 곳곳의 수려한 자연 풍경과 조화
 - 나오시마는 섬 전체가 미술 작품으로 뒤덮인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

61) 이호상·이명아(2012).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나오시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0권0호, pp.110-121.

- ③ 1998년 빈집 프로젝트 시작: 유명예술가들의 폐가를 활용한 예술작품
- ④ 2004년 지중미술관 조성: 안도 다다오 설계 주변 섬의 능선과 스카이라인 보존 및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건축물을 땅 속에 묻음
 - 미술관 외부에서 보면 외관이 보이지 않아 건축적 볼륨이 나타나지 않음
 - 지중미술관은 건립 이전부터 클로드 모네, 빌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 세 작가의 작품을 영구 설치하기로 하고, 작가와 건축가의 협업으로 구상한 미술관
- ⑤ 2008년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Conde Nast Traveler)는 나오시마를 '세계 7대 명소' 중의 하나로 꼽음
- ⑥ 2010년 한국 미술작가 이우환 미술관 건립, 안도다다오 설계 베네세 그룹 지원
- ⑦ 2010년 세토우 국제 예술 축제: 제련소가 있던 인근 섬 인구 50명의 이누지마,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던 데시마 등에서도 미술관을 개장
 - 이를 포함 나오시마 인근 6개 섬을 연계하여 예술작품 전시



〈그림 5-29〉 베네세 하우스 (출처: 네이버캐스트)

○ 사례지 현황 및 공간 특성

- 나오시마는 공간 콘텐츠와 환경과 재생 및 기업의 메세나 활동의 융합을 잘 이룬 사례
- 1997년 나오시마에서는 '집(家) 프로젝트'가 시작
- 이 프로젝트는 혼무라(本村) 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설 프로젝트
- 혼무라는 예로부터 절, 신사 등이 밀집해 있던 곳
- 그러나 근년에는 빈집이 늘고 있음
- 집 프로젝트는 이 빈집을 공간 그 자체로뿐만 아니라 공간에 고여 있는 시간이나 기억을 불러내 보존하는 예술가들의 작품
- 1998년 미야지마 다츠오가 설치한 '카도야(角屋)'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곱 군데가 완성

- 주민들의 비근한 생활공간에 예술가가 침투해 들어가는 컨셉트는 점차 효과를 발휘
- 주민들은 집 프로젝트를 지역 환경의 일부로 인식
- 관광 안내 및 작품 관리에까지 능동적으로 참여
- 주민들의 삶과 미술이 유기적인 관계와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⁶²⁾
- 혼무라 지역은 마을전체가 담장과 현관 문패 등 생활경관에 디자인을 배려하여 볼거리를 제공
- 골목길과 빈집 등을 주민과 예술가가 협업하여 생활속의 독특한 전시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소특성(Site-Specific)을 담아내고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융합하려는 의도
- 작품들은 전통적인 일본 옛 집이라 작지만 일본의 전통과 미의식을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을 두고 새로운 각도에서 느낄 수 있음



〈그림 5-30〉 빨간 호박, 쿠사마 야오이(Kusam Yayoi)의 호박 시리즈
(출처: 네이버캐스트)



〈그림 5-31〉 신사를 개조한 아트하우스 (출처: 네이버캐스트)

62) 조명래(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공간과 사회, vol.21, no.3, 통권 37호 pp.39-65.

제6장 비전 및 정책 방향설정

제1절 비전 및 핵심키워드

제2절 정책 방향설정

제1절 비전 및 핵심키워드

1. 비전

- “섬 속에 섬이 있다! 예술의 섬-옥포(Art Island-Okpo)”



〈그림 6-1〉 예술의 섬-옥포(Art Island-Okpo)

2. 핵심 키워드

- 지역 정체성(옥포)
 - 바다
 - 일출
 - 충무공
 - 1592(5월 7일,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첫 승지)
 - 옥포해전
 - Admiral Lee
 - 조선(대우조선해양)
 -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 등
- 거제시 상징물
 - 동백
 - 해송
 - 갈매기
 - 대구
 - 몽돌
 - 해금강
 - 맹종죽
 - 팔색조 등

○ 인간 중심(지역주민, 관광객)

- 힐링
- 소요유(장자)
- 웰니스(Wellness: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
- 물멍
- 치유
- SNS 인생샷 명소
- 아트캉스 등

3. 방향성

○ “문화예술로의 항해”

-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권역 중 옥포항(옥포여객선터미널, 수변공원, 예술의 거리 등)을 거제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술가의 독창성, 예술성을 융합하여, 차별화된 지역문화마케팅의 성공사례 추진



〈그림 6-2〉 옥포 융합 지역문화마케팅

4. 핵심가치

○ “해양과 예술, 자연과 문화, 창조적 재생으로 만드는 옥포항 아트스트리트”



〈그림 6-3〉 옥포 핵심가치

제2절 정책 방향설정

1. 설정 프로세스

- 도시재생, 문화적 도시재생 배경, 선행연구 분석, 관광 현황 및 트렌드 분석, 문화예술 도시 재생 활성화 사례분석 등을 거쳐 거제시 옥포항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되기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도출함

2. 정책 방향

- 옥포항을 중심으로 한 아트 프로젝트 활성화
- 차별화된 문화예술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 지역민과 관광객 참여 확대
- 지역경제 재도약 및 일자리 창출
- 거제 전역으로 문화예술 균형 발전 도모

3. 기대효과

- 쇠퇴하고 있는 옥포지역에 새로운 관점의 이슈 제기하는 창의적, 예술적 도시재생으로 문화적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경제에 활력
- ‘스토리’와 ‘비주얼’로 상상력 가미 된 문화의 힘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자긍심 고취하고, 관광객이 공감하는 명소로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아트프로젝트 추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참여의 폭이 확대되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국민, 국내외 문화예술가 인재들의 유입 기대
- 기억 공유 및 공감대 재생의 구도심 활성화로 주민 보다 관광객 유치와 계량화에 매몰된 국내 문화마케팅 문제 개선에 모범사례 제기

제3절 추진과제

□ 문화기획자, 예술가는 이 시대의 추진전략가

- 지역 정체성, 시대정신, 미학을 담은 아트프로젝트는 예술감독, 총괄기획자 등의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창조성, 상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게 예술행정가 존 피크의 ‘팔 길이의 원칙(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적용
- 국내외 지역을 대표하는 해변 지역 항의 성공사례와 같은 지역문화를 담아낸 로컬여행, 로컬 푸드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옥포항 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로컬 여행, 로컬 푸드, 로컬 굿즈 상품 개발 등 통섭의 지역주민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주체인 문화기획자, 지역예술가들의 성향은 대부분
 - 대중이 신경 쓰지 않는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문화예술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풀어내고 대안들을 찾아 실천
- 이에 따라 국내 아트프로젝트 경험 있는 전문가 집단과 옥포와 거제 지역 내 문화기획자,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아트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대안을 찾아 실행, 서로 교류하면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진

1) 옥포 아트프로젝트 브랜드 네이밍 설정(안)

- 애드미럴 리(Admiral Lee) 아트 스트리트
- 1592 아트 스트리트(Art St.)
 - 옥포항 바다국제광장, 수변공원과 옥포여객터미널, 예술의 거리 일원을 ‘장소적 역사성’ 강점을 부각, 1952년 음력 5월 7일 충무공의 불멸의 전승 신화 시작인 옥포대첩을 기념하여 “애드미럴 리(Admiral Lee) 아트 스트리트”, 또는 “1592 아트 스트리트”로 브랜드 네이밍을 제안

*장관급 지휘관인 해군 ‘제독(Admiral)’은 아랍어로 ‘바다의 지휘자’를 뜻하는 ‘아미르 알 바흐르(Amir-al-Bahr)’에서 유래)

2) 옥포항 랜드마크 공공미술 제작

- 대중음악, 영화처럼 미술에서 K-한류 주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조각가와 조선포 퇴직 용접공의 협업으로 지역 스토리 담은 대형 공공조형물 제작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긍심 고취(6GR 용접공 등)
- 국내 방송, 언론 연계 및 SNS 홍보마케팅 극대화하고 지역민, 관광객 힐링 휴식처 및 거제도 여행 포토존 조성

3) 옥포여객선터미널 도시재생

- 지역민의 추억이 있는 3층 건물을 존치, 리모델링해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공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
 - 전시장, 갤러리카페, 청소년 및 여성과 노년층 예술교육, 지역 굿즈와 특산물 판매 등
 - 새로 건축하여 이전하는 옥포1동 주민센터도 건축물 디자인을 조형 작품화하여 옥포항 수변공원 주변 조형물들과 조화로운 아트 존(Art Zone) 형성
- 외벽: 미디어 파사드 (media facade)
 - 야간 관광을 위해 건물 외벽에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 거제도 상징인 해금강, 동백, 바다, 일출 등 이미지, 충무공 첫승 옥포해전, 서불과차(徐市過此), 폐왕성 등 역사적 스토리, 지역 출신 예술가 청마 유치환 시인 시귀, 양달석 화백 그림, 거제도 관련 문학 등의 명문장으로 제작, 다양한 영상을 특정 시간에 투사
 - 예시)

만국 공통 불멸의 키워드 ‘사랑’ 테마 작품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지역 상징 동백꽃과 청마 시, 충무공 옥포해전 명언 등 크로스오버 미디어아트)

4) 수변공원 볼거리, 즐길거리 위해 아트마켓 존(Zone), 푸드트럭 존 운영 (주말, 상설)

- 애드미럴 리(Admiral Lee) 아트페스티벌, 옥포국제미술제(그래피티, 회화, 조각, 스트리트 아트, 디자인 분야 등), 세계문화 야시장, 로컬 푸드(충무공 첫승 밥상) 축제 추진
- 매년, 계절별 지속가능한 페스티벌, 프로그램 유치 및 국가나 지자체 문화예술,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등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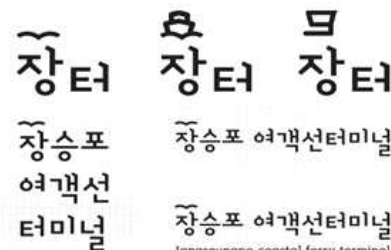
5) 브랜드 디자인으로 전략적 추진

- 전문 디자인 브랜딩 회사에 BI(Brand Identity) 의뢰를 통해 브랜드, 심볼, 로고, 패키지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차별화, 통일화 전략의 퀄리티 확보
 - 브랜드 디자인 (예시)



〈그림 6-4〉 브랜드 디자인 사례 (출처: sunnyisland)

- 네이밍 브랜드 디자인 선행연구 (사례)
 - 지역 가치 증진을 위한 장승포 페 여객선 터미널의 활용 방안 및 브랜드 제안에 관한 융합 연구⁶³⁾
 - 장승포 페 여객선 터미널의 새로운 브랜드 '장터'를 제안
 - '장터'는 첫째,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의 줄임말, 둘째, 장터(Market place: '함께 모으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아게이로'에서 파생된 말
 - 각종 모임이나 화합의 장소,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 아이들의 놀이터 등의 장소를 뜻
 - 이는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의 원기능인 여객 및 운송 기능을 유지함과 더불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임을 상징
 - '장터'의 로고는 리듬감이 있는 서체를 사용하여 경쾌함을 강조
 - '장터' 위의 심벌은 바다의 물결, 갈매기, 책이 펼쳐진 모양 등 상징요소의 다중 의미를 단순화, 용도에 따라 변화시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그림 6-5〉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의 로고
선행연구 사례

63) 이하나·오광명·백진경(2019), 지역 가치 증진을 위한 장승포 페 여객선 터미널의 활용 방안 및 브랜드 제안에 관한 융합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7, no.2, pp.239-250.

제7장 결론

결론 및 제언

-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의미만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개발형태가 결정됨
- 정책당국은 도시경제여건, 국내외 도시의 성공사례, 자치단체장의 정책 등을 고려한 개발형태를 선호
 - 반면, 지역주민은 거주지와 지역성에 기반으로 한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형성에 중점⁶⁴⁾
-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의 관계에서 문화예술이 늘 바람직하게 적용된 것은 아님
 - 문화예술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다양성을 반영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경제적 목적을 위해 표준화된 상품이 됨⁶⁵⁾
- 이제까지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예술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적 목적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온 사례가 있음
 - 사업목표 지향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정량적인 측면에 치중
 - 반면에 장소성, 정체성, 개인의 삶과 추억, 일상생활로서 문화와 같은 추상적이지만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 되는 정성적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Smith, 2010 : 26)
-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시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예술성, 공동체성, 지역성이 있음⁶⁶⁾
- 예술성
 - ‘예술성’은 문화예술을 통해 감성적 공동체를 구성
 -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인정 및 소통 활성화
- 공동체성
 - ‘공동체성’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공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 자신을 재설정하는 것

64) 정진원·김천권. (2012). 문화도시조성 쟁점요인의 중요도 분석: 인천광역시 전문가와 시민집단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3), pp.65-86.

65) Smith, M. K. (2010). Cultural Planning for Urban Regeneration, LAMBERT Academic Publishing.

66) 심보선, 강운주, 전수환(2010).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경영의 시론적 고찰: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8권

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 마을> 만들기 사업 전략 연구--에서 가져옴

- 즉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음
- 지역성
 - ‘지역성’이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아래로부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창조하는 행위
- 이때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협력은 정책의 개입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음
 - 이미 국내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지역사업이 이러한 정책적 개입의 사례
- 종종 획일화나 무분별한 개발, 과시적인 형태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지역성이 활성화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장소’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소통을 끌어낼 수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보고서/도서

- 거제시(2019).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국토연구원:경기도(2004).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 김철수(2001).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 창원시정연구원(2017). 창원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
- 한국문화정책연구원(200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계획모델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 목포본부(2015). 목포 원도심 쇠퇴실태와 도시 재생방안
- CASE Report 43(2008). Bilbao City Report.
- Smith, M. K.(2010). Cultural Planning for Urban Regeneration, LAMBERT Academic Publishing.

학술지

- 강원발전연구원(2014).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문화예술관광 상품 개발, 강원논총, 8(8), pp.100-119.
- 공주형(2020). 지역문화 분권의 관점에서 창작공간 운영 프로그램 연구: 인천아트플랫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2권 1호, pp.31-42.
- 김미옥(2009). 지역의 문화진흥정책과 문화예술경영의 접목-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2), pp.203~214.
- 김상원·이종영(2012).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생 사례를 통한 공간의 의미 재생산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25), pp.115-139.
- 김서희·박치완(2017). 문화주도 도시재생을 통한 컬처노믹스 사례 분석 -영국 게이츠헤드를 중심으로-, 한국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pp.71~74.
- 김재민(1999).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경영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3, pp.99-117.
- 김태현·박숙진·김주리(2016).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체계와 관광정책의 역할: 서울 북촌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2(2), pp.71-90.
-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 행정 학보, 26.3, pp.1-22.
- 박주영(2019). 2020-2024 한국관광 트렌드 전망. 한국관광정책(78), pp.12-19.
- 박채운·이주형(2009).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1, pp.89-102.
- 배준구(2019).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과 시사점-마르세유와 낭트 사례로, 지중해지역연구, 제21권 제1호, pp.103-132.

- 심보선·강운주·전수환(2010).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경영의 시론적 고찰: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8권, pp.39-82.
- 양윤서(2017). 도시재생 측면에서 본 구겐하임 효과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7권 제4호, pp.43-52.
- 윤정란·여옥경·장성화(2012).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비교 연구 -전주시 및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6.3, pp.321-332.
- 이경찬·민웅기·김남조(2014).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방도시 재생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5, pp.67-91.
- 이나영·안재섭(2014). 서울 서촌지역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 1호, pp.15~27.
- 이익주(2018).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방법과 결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분석, 17-28호
- 이일희·이주형(2011).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pp.101-114.
- 이하나·오광명·백진경(2019), 지역 가치 증진을 위한 장승포 폐 여객선 터미널의 활용 방안 및 브랜드 제안에 관한 융합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7, no.2, pp.239-250.
- 이호상·이명아(2012).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나오시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0권0호, pp.110-121.
- 정진원·김천권(2012). 문화도시조성 쟁점요인의 중요도 분석: 인천광역시 전문가와 시민집단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3), pp.65-86.
- 조명래(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공간과 사회, vol.21, no.3, 통권 37호 pp.39-65.
- 조용현(2003). 관광연구에서의 지속성 개념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6), pp.125-137.
- 최지연·여영호(2020), 메트로 폰티의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건축 재생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 64호, pp.363-374.
- Bramwell, B. & B. Lane(1993).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tourism: The potential and the pitfall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2), pp.71-80.
- Bramwell, B. & B. Lane(2012). Towards innovation in sustainable tourism research?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0(1), pp.1-7.
- Gossling, S.(2002). Global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ourism.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2, pp.283-302.
- Hunter, C. & J. Shaw (2007). The ecological footprint as a key indicator of sustainable tourism. Tourism Management, 28, pp.46-57.
- Lane, B.(1994). Sustainable rural tourism strategies: A tool for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2), pp.102-111.
- Liu, C. H., G. H. Tzeng, M. H. Lee & P. Y. Lee(2013). Improving metro-airport connection

- service for tourism development: Using hybrid MCDM model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6, pp.95-107.
- Liu, Z.(200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 critiqu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1, pp.459-475.
- Saarinen, J. (2006). Traditions of sustainability in tourism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 pp.1121-1140.
- Wheeler, B.(1993). Sustaining the ego,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2), pp.121-129.

학위논문

- 김주년(2004). 지속가능관광개발지표(STDI)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오희택(2011). 문래동의 장소성 변화와 문화 매개 도시 재생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정우(2007). 지속가능 관광개발 및 사회자본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관광거버넌스간의 구조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윤현석(2011).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형문(2012). 문화자본과 예술관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보도자료

-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7000140>
-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0123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form=MY01SV&OCID=MY01SV
-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771>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873070.html#csidxfc4fc38de57bbabb9665738c55ce207>

웹사이트

- 거제도 이야기 <https://cafe.daum.net/storygeoje>
- 거제시청 홈페이지 www.geoje.go.kr
- 낭트 섬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https://www.creativefactory.info/cluster/international/>
- 도시재생뉴딜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newdeal4you/222089916362#>
- 보물섬 남해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mhae_gun/222488712144
-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 www.samnyecav.kr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